

함께하는 FTA

April 2014 vol. 23

FTA
10년



한국의 FTA 10년 성과 심층 분석

파워 인터뷰: 에르난 브란테스 주한칠레대사

공식서명한 한·호주 FTA 기대효과 및 대응 전략



만개

길지도 짧지도 않았던 10년,
한국의 FTA가 꽃을 피울 때가 됐습니다.
잠깐 숨을 돌리고 만개한 꽃을 즐겨볼까요.
꽃이 지더라도 아쉽진 않습니다.
그 자리에 돋은 잎이
한 여름 뜨거운 햇볕을 가려줄 테니까요.

“세계 각국
FTA 추진에 열심...
우리나라도
뒤처질 수 없죠”

이혜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한국은 현재 46개국과 9건의 FTA를 발효하고 있으며 한국과 FTA 발효국의 GDP를 합하면 56.2%(=FTA 경제영토)에 이를 정도로 FTA에 적극적인 나라다. 그러나 이 수치들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서만 비로소 의미를 지니게 된다. 세계 각국은 어느 정도나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매년 전 세계 주요국의 FTA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정리한 보고서를 내놓는다. 올해 3월 17일 발간된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4년 전망’은 제본된 보고서로는 거의 유일하다 보니 정부부처·유관기관·연구소·기업들로부터의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인기의 비결은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멤버 5명이 두 달 동안 각 나라의 정부기관, 언론보도, 국제기구의 웹사이트 등을 샅샅이 뒤지면서 찾아낸 최신 정보 덕분이다. 보고서 발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혜연 연구원(27)은 “우리나라처럼 FTA 발효국을 인터넷에 잘 정리해 놓은 나라는 드물고, WTO(세계무역기구) 같은 국제기구는 각 나라에서 FTA 체결 정보를 통보해줘야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게 늦은 경우가 많다. 일일이 해당 국가의 정부 웹사이트와 언론보도를 2~3중으로 확인해야 해서 팀원들이 상당히 고된 작업을 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FTA 교역량(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은 35.3%에 그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작으면서도 FTA 교역비중이 높은 나라가 많다. 한국의 FTA 교역량이 낮은 것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포함되지 않아서인데, 이번 연구를 통해 중국과의 FTA 필요성을 재확인하게 됐다”며 “중국과 FTA를 발효하게 되면 FTA교역비중은 55.5%(이상 수치는 해당 보고서 기준)까지 높아지게 된다”고 얘기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해 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07학번)를 졸업하자마자 국제무역연구원에 입사한 재원이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경제로 풀어보고 싶어 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주요국의 FTA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 경제블록 간 경쟁이 심화되고, 선진국 간 FTA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번 작업을 통해 세계 각국의 FTA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국제무역연구원 웹사이트(<http://itl.kita.net>)에서 PDF파일을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10 Years Since 1st FTA of Korea

2004년 4월 1일 한국의 첫 번째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FTA 초보 국가였던 한국은 칠레와의 FTA 이후 아세안, EU, 미국 등 세계의 주요 거대 시장과 차례로 FTA를 맺으며, FTA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세계 각국도 FTA 맺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한국의 FTA 전략은 또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격변하는 통상환경과 앞으로 다가올 한·중 FTA,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4년 4월 15일(통권 23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문의 044-203-4131)
발행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People
01
이혜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Issue Focus
04
공식서명한 한·호주 FTA의
기대효과 및 대응 전략

COVER STORY
06
한국 FTA 10년의 경제적 평가
박찬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

08
산업별 FTA 효과 분석
조철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장관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O(행)지원센터장

10
FTA 정책의 진정한 평가기준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2
'무역업계가 바라본
한국의 FTA 10년' 설문 분석



FTA Cartoon
13
FTA 10년! FTA 백년강국!
안종만

Leader's View
14
FTA와 효과적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이준호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Power Interview
16
에르난 브란테스
주한 칠레 대사

FTA Lounge
18
수출 초보기업 지원 프로그램-
①한국무역협회 '수출 스타트업'

20
토목섬유 전문 수출업체,
대윤지오텍

22
한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의 쌀':
반도체



24
비빔밥: 한 술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양충모 객원기자

FTA Study
26
자유무역의 역사-
④한국경제와 WTO
이경희 신세계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8
세계의 FTA-③미국의 FTA
이혜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30
원산지관리 실무-
③생산입증서류(제조공정도) 및
거래관계증빙자료 등
박종광 Ciel HS 대표/관세사

32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
④담배·전자담배·금연보조제품
이민선 관세사



34
사후검증 따라잡기-
④정보제공요청서 대응Ⅱ
강동구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사후검증지원실 관세사

Culture Prism
36
봄, 그리고 자전거
심영섭 심영설아트테라피 대표

38
독자가 만난 사람:
안애순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40
국내 유일 치즈학교,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탐방기

FTA News
42
한국의 FTA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개최 등

FTA Meeting
44
'함께하는 FTA' 편집위원회 개최

공식서명한 한·호주 FTA의 기대효과 및 대응 전략

세계 12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 자원공급 기대

4월 8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류 롬(Andrew Robb)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한·호주 FTA에 서명했다. 양국은 2009년부터 7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해 작년 12월 한·호주 FTA의 실질타결을 선언하였으며, 올해 2월 10일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한 바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앤드루 로브 호주 통상투자 장관이 4월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토니 애벗 호주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호주 FTA에 서명하고 있다.

한·호주 FTA는 우리가 체결한 11번째 FTA로 우리는 총 48개국과 FTA를 체결(서명 기준)함으로써 GDP 기준 FTA 시장규모는 57.3%(발효 9개+서명 2개), 전체 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은 39%를 차지하게 된다.

자동차 등 대호주 수출 확대될 듯

호주는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높고(전체 교역의 60.8%), ASEAN 국가와 FTA를 다수 체결했고 호주 시장 내 아시아 국가간 경쟁이 치

열해, 한·호주 FTA는 우리기업의 호주 시장 내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호주와 이미 FTA를 체결한 ASEAN 국가뿐만 아니라 호주·태국 FTA를 통해 자동차 등에 대해 간접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기업과도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해졌다. 호주는 현재 7개의 FTA(호·뉴·ASEAN, 호·칠레, 호·뉴, 호·미, 호·말레이시아, 호·싱가포르, 호·태국 FTA)가 발효 중이며, 일본, 중국과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호주는 세계 12대 경제대국(2012년 세계은행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세계 6위(6만 7,556달러)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와 교역 확대 잠재력이 크다. 한·호 양국간 교역은 2007년 180억 달러 수준에서 2013년 303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호주 투자도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대호주 전체투자의 81%인 130억 달러가 이뤄지는 등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다.

한·호주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불, ()는 증감률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4,692 (23.1)	4,691 (0)	5,171 (10.2)	5,243 (1.4)	6,642 (26.7)	8,164 (22.9)	9,250 (13.3)	9,563 (3.4)
수입	11,309 (14.7)	13,232 (17.0)	18,000 (36.0)	14,756 (-18.0)	20,456 (38.6)	26,316 (28.7)	22,988 (-12.6)	20,784 (-9.6)
총교역액	16,001	17,923	23,171	19,999	27,098	34,480	32,238	30,347

※2013년 기준 호주는 우리의 제6위 교역파트너(수출 10위, 수입7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호주 투자 동향

단위: 천 달러, ()는 신고건수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누계
호주의 대한국 투자	923,535 (30)	46,981 (24)	68,549 (35)	224,515 (33)	7,247 (24)	90,186 (22)	152,569 (27)	50,491 (22)	(1973~2013년) 2,206,697 (465)
한국의 대호주 투자	189,049 (79)	155,185 (115)	652,716 (135)	1,250,931 (122)	766,338 (107)	4,141,903 (90)	4,406,856 (78)	1,686,871 (76)	(1968~2013년) 16,159,875 (1,450)

※2013년 현지법인 신고금액 기준 호주는 대한민국 제16위 투자주체, 한국의 제5위 투자대상
자료: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교역구조 면에서 우리는 주로 자동차, 석유 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인 이 상적인 FTA 파트너에 속한다.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 우리의 대호주 수출 주력품목(자동차·자동차부품·건설중장비·합성수지·철강 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은 대호주 수출 유망품목으로 꼽히는 자동차범퍼, 광섬유 케이블, 공기청정기 필터, 식품, 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관세 인하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호주는 우리나라 최대의 광물자원(석유, 가스 등 제외) 공급국으로 FTA를 통한 자원협력 강화와 투자 안정성 확보로 안정적인 자원공급이 기대되고 있다. 2013년 기준 우리는 호주로부터 전체 철광의 72%, 석탄의 44%, 알루미늄광의 77%, 아연광의 20%를 수입하고 있으며, 호주는 해당 품목들에 대해 제1위의 수입대상국이다.

10년 내 대다수 품목 관세철폐

한·호주 양측은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호주측은 거의 모든 품목 5년 내 관세철폐)가 이뤄진다. 우리의 대호주 수출 품목인 자동차(관세율 5%)의 경우 가솔린 중형차(1500~3000cc), 가솔린 소형차(1000~1500cc) 등 우리 주력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에 합의했으며, 기타 나머지 승용차는 3년 철폐에 합의했다. 타이어(관세율 5%)

는 즉시 철폐, 기어박스·차체부품·제동장치·완충기 등 자동차 부품(관세율 5%)은 3년 내 철폐하기로 했으며, TV·냉장고·세탁기·건설중장비·섬유기계 등 주요 가전 및 일반기계에 대해 대부분 즉시 철폐된다. 냉연강판·열연강판·도금강판 등 주력 철강제품 및 합성수지 등의 석유화학 제품들도 대부분 즉시철폐된다.

한편, 우리 농축산물 민감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허제외(쌀·과실류 등 169개 세번), 계절관세(오렌지, 포도 등 12개 세번), 10년 초과 장기철폐(509개 세번) 등 다양한 예외수단을 확보했다.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 관세철폐를 양허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등을 도입했다.

원산지기준의 경우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자동차·기계) 생산과정 및 원자재 해외 수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고 농수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한 기준에 합의했다. 승용차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집적법 30% 또는 공제법 40%)', 기계·전기기기는 '6단위·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40%', 신선 농산물은 완전생산기준 등 대부분이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한·미/한·EU FTA와 유사한 역외가공지역 조항을 도입하되, 회의 개최 빈도 확대(발효 후 6개월 내 회의 개최, 연 2회 회의 개최), 개성공단을 역외가공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서비스·투자협정과 관련해서, 우리측은 한·미 FTA, 호주측은 호·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투자시장 개방하는 한편,

활발한 대호주 투자동향을 감안, 한·미 FTA와 유사한 ISD(투자자-정부 소송제도) 조항을 도입해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2013년 우리의 대호주 투자는 17억 달러(우리의 5번째 투자대상국), 호주의 대한민국 투자는 5억 달러(호주의 16번째 투자대상국)에 이른다. 또한 정부조달에 대한 시장접근 약속을 포함함으로써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회원국인 호주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에 대한 정부조달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한·캐나다 FTA 고려, 농축산업 대책 마련

한편 대외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해양수산연구원·노동연구원·조세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 공동으로 한·호주 FTA 협상결과를 반영한 경제적 영향 평가를 진행 중인데, 잠정적 분석으로 한·호 FTA 발효 후 10년간 GDP는 0.14%, 소비자 후생수준은 약 1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호주와의 FTA 발효 시 농축산업 등에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보완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제기된다. 정부는 호주와의 FTA 뿐 아니라 최근 타결된 한·캐나다 FTA(3.11일 타결)까지 종합해 축산업 등 피해분야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정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점검해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 및 세제·제도적 지원방안을 이해관계자인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와 지속 협의한 후 기재부·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한국 FTA 10년의 경제적 평가

무역장벽 낮아지자 한국 '수출체력' 좋아졌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지난 4월 1일부로 발효 10주년을 맞이했다. 이는 우리 무역이 FTA를 활용하게 된지 10년이 경과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0년이라는 시간동안 FTA가 우리 무역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러한 평가는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2004년 4월 1일 첫 FTA를 발효한 이래, 지난 10년 간 FTA 상대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난 것과 동시에 수출품 및 수출기업의 수도 크게 늘어나 수출 지향적 경제구조가 더욱 단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01 FTA 상대국과 교역 큰 폭 증가

우선 가장 기본적인 교역 효과를 살펴보면, FTA 발효 이후 교역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와의 교역은 FTA 발효 전 3년 동안 연간 1.8%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교역이 크게 늘어나지 않던 상황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對)세계 교역증가 3.8%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다. 하지만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대(對)칠레 교역이 빠르게 늘어나며 지난 10년 간 연평균 증가율이 16.3%에 달했다. 이처럼 교역이 큰 폭으로

늘어났음은 물론이고 같은 기간 대세계 교역 연평균 증가율 11.2%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 같은 교역 확대는 다른 FTA에서도 확인되었다. EFTA, EU, 페루, 터키 등 주요 FTA 상대국과의 교역에서 FTA 발효 전보다 발효 이후 교역 증가세가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ASEAN, 미국의 경우 발효 전보다 발효 이후 교역 증가율이 낮았지만 FTA 이후 같은 기간 대세계 교역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교역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02 FTA 상대국 내에서 한국제품 점유율 상승

FTA의 효과는 시장 점유율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발효전인 2003년 칠레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2.79%로 경쟁국인 일본(3.67%) 등에 뒤처지고 있었다. 하지만 발효 이후 FTA 효과에 힘입어 일본에 앞서기 시작했고 점유율은 2007년 6.84%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이후 칠레가 일본, 중국 등과 FTA를 체결하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對칠레 주력 수출품인 석유제품의 수출 물량이 공급 부족이 극심한 일본 등으로 옮기면서 점유율은 2012년 현재 3.28%로 낮아졌다. 마찬가지로 EFTA, ASEAN, 페루, 미국, 터키 시장에서도 FTA 발효 전에 비해 FTA 발효 이후 한국산 점유율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경기 침체 영향이 크게 나타났던 인도, EU 시장에서는 발효 이후 시장 점유율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EU 시장의 경우 FTA 보다는 금융위기와 EU 재정위기로 대(對)EU 주력 수출품인 조선 경기가 크게 위축된 점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03 FTA의 무역 창출 효과, 중소기업도 혜택

FTA는 새로운 무역을 창출하는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칠레 FTA 발효 전인 2003년에는 수출 품목수가 938개, 수입품목수가 168개에 머물렀다. 하지만 FTA 발효 이후 10년이 지난 2013년 현재 수출 품목수는 1,562개이고, 수입은 386개까지 늘어났다.

수출입의 품목수 증가는 다른 FTA에서도 확인하게 나타났다.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 FTA 발효 이후 수출입 품목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또한 품목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참가 기업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한·칠레 FTA 전후의 수출 기업수를 분석한 결과 2003년 733개에 머물렀던 대칠레 수출 기업은 신규 기업이 속속 참가하며 2013년 2,096개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품목수나 기업수 증가에 주목하는 것은 FTA가 새로운 무역을 창출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FT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새

대(對)FTA 상대국 교역 증가율 및 수입시장 점유율(%)

FTA 상대국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발효전 3년 연평균 증가율		1.8	5.7	16.9	9.8	-0.2	9.6	5.9	19.1
발효연도 ~2013년	대(對)FTA국가 연평균 증가율	16.3	14.9	11.8	9.6	4.4	20.0	1.4	21.6
	대(對)세계 연평균 증가율	11.2	8.8	7.8	11.9	6.4	6.4	-0.2	0.7
FTA발효 전년도 상대국 시장 점유율		2.79	0.66	5.86	2.86**	2.6	3.4	2.57	2.39***
FTA 발효이후 2012년 시장 점유율		3.28	0.71	8.02*	2.67**	2.1	3.8	2.75	2.42***

주: *ASEAN 시장점유율 2011년 기준 **인도 시장점유율 4~3월의 회계연도 기준 ***터키 시장점유율 FTA 발효 이전은 2012년, FTA 발효 이후는 2013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IMF DOTS, 인도 상무부, Eurostat, GTA 등

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한·칠레 FTA 사례를 볼 때 우리 중소기업에 새로운 수출 기회가 창출된 점은 고무적이다. 실제로 한·칠레 FTA 이후 연간 백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수출기업보다 백만 달러 이하의 수출기업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04 FTA로 우리 수출 기업의 관세 장벽 낮춰

FTA 관세인하 효과(FTA 100% 활용 가정)를 분석해 본 결과 FTA로 우리 수출 기업의 관세 장벽도 큰 폭으로 낮아졌고 이로 인한 관세 절감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실제로 우리 수출 기업의 대세계 관세 장벽은 2003년 5.28% 수준이었으나 지속된 FTA 확대로 2013년 4.65%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FTA로 관세 장벽이 낮아지며 발생하는 관세 절감 효과도 한·칠레 FTA로 관세가 낮아지기 시작한 2004년 연간 2,000만 달러 수준에서 9건의 FTA가 발효된 2013년 연간 79.9억 달러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FTA 발효가 늘어나고 시간이 경과하며 관세 인하 폭이 커짐에 따라 관세 절감 효과가 커지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현재 협상을 마친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와의 FTA와 협상 중인 한·중 FTA까지 발효되면 FTA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관세 장벽이 비약적으로 낮아지고 관세 절감 효과도 큰 폭으로 늘어나 우리 기업의 수출에 큰 도움이 기대되는 대목이다.㉞

산업별 FTA 효과 분석

발효국 내 한국차 점유율 증가... 농축산물은 FTA 활용도 높여야

한국의 FTA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제품의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와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 우려다. 그렇다면 지난 10년 간의 FTA를 통해 한국의 자동차산업과 농축산업은 실제로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각각의 FTA 효과에 대해 진단해 보았다.

01 자동차산업 대칠레 수출 5배 증가...점유율 30% 넘어

글 조철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장

세계 자동차산업은 주요국의 몇몇 브랜드에 의해 치열한 경쟁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용적 소비 확산의 영향으로 가격경쟁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상황 속에서 FTA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는 경쟁자들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줄뿐만 아니라 부품조달 비용 등을 저하시켜 부품조달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우리나라가 2004년 칠레와 FTA를 추진한 이래 다양한 국가 및 지역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주요한 자동차 소비시장이다. 또한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 중 독일을 제외하면 자동차



올해 3월 11일 칠레 대통령 취임식에 의전용 차량으로 제공된 한국산 자동차

산업에서 우리가 대부분 경쟁력 우위에 있다. 특히, 대부분의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는 일본 브랜드와 경쟁하는 상황이어서 FTA 추진이 부진한 일본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2004년 발효된 칠레와의 FTA는 관세철폐가 완전 실현되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이나 EU와의 FTA에 따른 자동차부문 관세철폐는 아직 진행 중이어서 완전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체결된 호주와 캐나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 시장이 존재하고, 협상 중인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다.

칠레와의 FTA 효과를 살펴보면,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03년 2만 대에 불과했던 대칠레 자동차수출이 최근 11만 대로 5배 이상 증가했다. 36만 대인 칠레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의 점유율은 3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부품의 대칠레 수출도 2003년 2,100만 달러에서 작년 7,7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미국과 EU에 대해서도 완성차 관세 철폐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자동차부품 관세는 완전 철폐되어 최근 이들 지역에 대한 자동차부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FTA는 가시적인 관세 및 비관세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 제품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가격인하와 연계될 수 있는 FTA가 추진되어 우리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우리 자동차브랜드는 EU와 미국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렇지만 FTA에 의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입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10년 1만3,000대에서 2013년 3만2,000대로 거의 3배나 늘었고, 독일로부터의 수입도 4만9,000대에서 9만 대로 거의 2배에 가깝게 늘어났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후생은 증가하겠지만 국내 자동차업계에는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국내 자동차공장의 가동률은 90%를 상회하고 있어 수출 여건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수출할 여력이 없다. 따라서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자동차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자동차수출보다 부품수출의 증대가 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부품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02 농축산업 FTA 활용율, 수입 70% 수출 24.7%

글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장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한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 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칠레를 비롯하여 앞서 체결한 FTA들과 비교 시 농축산물 수입규모가 크고 관세 철폐율도 높아 국내 농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FTA 이행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인하 및 철폐가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도록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수입제한조치(ASG)도 확보하고 있다. 고율관세가 적용되었던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감축 없이 쿼터량(TRQ)만 증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부 수입과일에 대해서는 국내산 과일 출하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계절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은 칠레와 FTA를 처음 체결하였던 2004년 당시 101억 달러였던 것이 2013년에는 304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수입액 중 FTA 체결국 비중도 1%에서 50%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농축산물 수출은 19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수출액 중 FTA 체결국으로 수출한 비중도 0.1%에서 35%로 확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충북 충주 사과

대됐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간 농축산물 교역에서 원산지증명을 통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비중은 수입이 70%인 반면 수출은 24.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FTA 체결 이후 국내 농산축산물 시장도 다소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국내 육류 시장에서 FTA 체결국들의 시장 점유율은 2004년 0.7%에서 2013년 11.3%로 높아졌으며, 국내 과일시장에서도 0.3%에서 10.7%로 높아졌다. 국내 농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미 FTA의 경우 발효 후 미국산 육류수입은 미국에서의 생산량 감소로 오히려 감소했다. 그러나 이행 초기 관세감축 폭이 큰 일부 과일의 경우 수입량이 증가했다. 미국산 오렌지 수입증가는 국내산 감귤과 딸기소비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내 감귤 및 딸기 생산농가는 오렌지 수입 시기에 출하를 피하기 위해 출하시기를 앞당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국내 생산구조에도 다소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FTA 이행 초기에는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증가효과는 제한적이지만 FTA 이행이 진전됨에 따라 FTA가 국내 농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FTA 국내보완대책도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FTA 추진이 우리 농업의 입장에서 큰 위협이지만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수출농산물의 원산지증명 지원 체계를 강화해 수출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수출시장에 대한 조사기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㉞

FTA 정책의 진정한 평가기준

무역수지만으로 보는 것은 단편적... FTA 통한 경제시스템의 질적 도약 절실

어떻게 하면 FTA의 이익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FTA 효과 분석은 단순히 수출·수입이 얼마나 늘었는가에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FTA의 효과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FTA의 의의는 생산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과 동태적 생산효과까지 감안해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기 직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 의회에 제출한 한·미 FTA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FTA의 시행으로 인해 10년간 한국의 대미 수입은 97억~109억 달러가 증가하고 미국의 한국 상품 수입은 64억~69억 달러가 늘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국내의 반응은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게 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두됐다. 반면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우리의 수출은 133억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86억 달러 늘는 데 그쳐 한국이 미국보다 더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한·미 FTA가 발효된 1년차인 2012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585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4.1% 증가했다. 발효 2년차인 지난해 수출액은 620억 달러로 6.0% 늘어 증가율이 더 높아졌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5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54억 달러 늘어났다.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한국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난 배경으로 한·미 FTA를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 내에서는 한·미 FTA 발효 전인 2010년, 2011년 대미 수출 증가율이 각각 32.3%, 12.8%로 한·미 FTA 발효 이후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아울러 한·미 FTA가 정부규제를 제한해 국내 정책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한다.

EU와의 FTA가 발효된 이듬해인 2012년 우리나라의 대EU 무역수지 적자가 10억320만 달러이고, 지난해

엔 74억242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을 이유로 한·EU FTA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부는 석유제품,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등을 중심으로 한·EU FTA 혜택품목의 수출이 평균 6.2% 증가했고, 미국의 대(對)한국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했음을 이유로, 한·미 FTA의 가치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4년 4월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양국간 교역이 2003년 16억 달러에서 2013년 71억 달러로 4.5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 세계 교역증가분인 2.9배보다 높은 수치이므로 우리나라의 FTA 정책이 교역증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아세안 FTA도 지난해 우리가 아세안시장에서 286억5,000만 달러의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거둔 원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역수지만 판단하는 수출지상주의적 논리 벗어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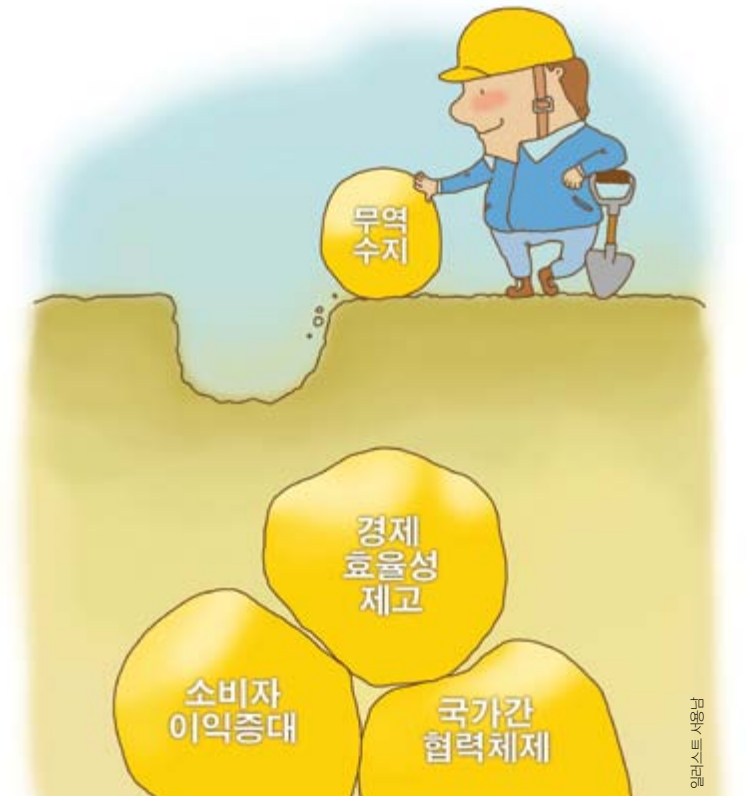
이제는 이러한 단편적 논리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다. FTA를 통한 교역 자유화의 이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FTA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누가 더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FTA란 교역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교역 자유화의 이익은 수출 못지않게 수입에 의해 발생한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분이 100억 달러에 이르느냐 아니면 86억 달러에 그치느냐 하는 수량적 비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수입 증가는 항상 그로 인한 손실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수입

국 경제 전반에 발생시킨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FTA상대국들로부터 값싼 유제품, 육류, 기계류, 화학·고무 제품 등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다. 그 결과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일부 국내 산업은 일정한 피해를 보게 되지만 우리 경제는 이익을 누리게 된다. 대다수 소비자는 같은 품질의 제품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값싼 수입품 소비로 인해 절약한 돈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투자되고, 이들 금융기관은 이 돈을 가장 효율적인 생산 분야에 재투자해 더 큰 생산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 결국 우리 경제는 비효율적인 분야에서 효율적인 분야로 재원이 재투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상대국 경제 또한 한국 제품의 수입 증가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석유제품, 섬유 및 의류, 가전제품, 신발 등은 외국 소비자들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교역 자유화의 이익을 경상수지 흑자폭으로만 이해하려는 수출지상주의적 고정관념을 떨쳐 버려야 한다. 수입을 할 때 해외로 지불하는 달러만 보지 말고 수입이 경제 전반에 주는 더 큰 혜택을 생각해야 한다. 결국 국가 간 FTA를 맺어 교역량을 서로 늘리는 것은 상호 수출과 수입의 양을 모두 늘려, 수출에서 오는 이익은 물론이고 수입이 주는 혜택을 보게 함이다. 한국과 미국 중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 수입을 적게 하게 되는지를 계산해 한·미 FTA가 누구에게 더 이익이 되는지를 논하는 것은 FTA의 효과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소비자 이익, 동태적 생산효과 등 새로운 기준 필요

따라서 FTA의 목표를 수립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두어져서는 안 된다. 기존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효과에 더해 그 피해가 의미하는 자원의 재분배 효과, 소비자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



“FTA의 의의는 경제의 효율성 제고, 경쟁심화를 통한 소비자 이익 제고, 그리고 국가간 협력체제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FTA의 의의는 경제의 효율성 제고, 경쟁심화를 통한 소비자 이익 제고, 그리고 국가간 협력체제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 FTA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1997년 경제위기의 성공적 극복 이후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에 따른 잠재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1990년대 이후 대내적 경제성장률 저하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도 이제 단순한 해외시장에 대한 양적 확대 정책을 넘어서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제·사회시스템의 질적 향상 및 국제수준화가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는 적극적인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 우리 경제가 더 이상 비효율을 감당하면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역업계가 바라본 한국의 FTA 10년' 설문 분석

수출·매출 증대에 도움...복잡한 절차 어려워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 10주년을 맞아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무역업체 및 회원사 1,000개사를 대상으로 FTA 평가 및 활용도, 그리고 향후 FTA의 방향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에 응한 기업들의 FTA 활용도와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중국과의 FTA 조기 타결을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 대상의 97.5%는 종업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연 매출액 100억 원 미만 기업도 72.9%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다수인 우리나라 기업 분포에 부합하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업체들 중 60.6%는 'FTA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의 79.2%는 'FTA가 기업 경영, 수출입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했다.

도움이 된 가장 큰 요인에 대해 기업들은 FTA가 △수출확대·비용절감·매출증대로 연결(47.7%)된 점을 꼽았고, △경쟁국 및 기업 대비 유리한 거래환경 조성(20.7%), △현지 시장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도 개선 등 간접효과 발생(15.6%), △신규거래선 발굴에 도움(9.7%) 순으로 꼽았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에 대해서는 △관심국가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점(27.7%), △경기침체·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FTA 효과 상쇄(25.7%) 등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고, △FTA가 거래 확대보다는 기존 거래에 복잡성 등을 초래했다(25.1%)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비관세 장벽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6.8%)과 △주력 품목의 시장 개방이 이뤄지지 않은 점(3.7%)도 일부 답변했다.

현재 발효 중인 FTA 가운데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업체

들은 미국(41%), EU(28.8%), ASEAN(아세안, 17.6%), 인도(5.6%), 칠레(2.2%)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FTA 활용 경험에 있는 업체들은 EU(60.4%), 미국(51.5%), 아세안(28.5%), 인도(10.2%), 칠레(8.1%) 순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복수 응답)해 한·미 FTA보다 한·EU FTA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FTA 활용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복잡한 절차(38.7%), △정보 부족 문제(24.3%), △바이어 및 셀러의 협조 부족(11.2%)을 꼽았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가 협상을 진행하거나 검토 중인 FTA 가운데 조기 타결을 희망하는 FTA를 조사한 결과 한·중 FTA(44.8%), 한·중·일 FTA(17.4%),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1.6%)을 꼽았는데, 이들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중국과의 FTA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문 개요 (한국무역협회 발표 재인용)

조사대상 무역업체 및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대상 랜덤 표본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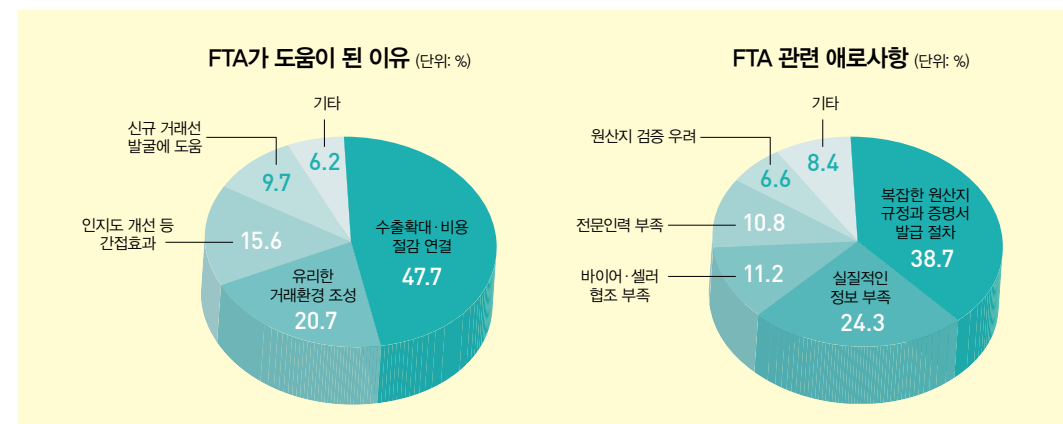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유효표본 1000개 업체

조사기간 2014년 3월 4~19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웹 설문조사(이메일, 전화, 팩스 조사 병행)

수행기관 코리아리서치



FTA 10년! FTA 백년강국!

안종만



FTA 선도국 코리아의 저력, 전 국민이 힘을 모을 때입니다.



글 이준호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경제학 박사)

FTA와 효과적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각개전투는 고비용·저효율... 글로벌 가치사슬로 묶어라

우리나라의 FTA 영토가 확대일로에 있다. 한·호주 FTA 타결에다 한·중 FTA가 탄력을 받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우리의 FTA 체결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8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 영토의 확장은 국내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글로벌경쟁력이 취약한 기업들에게는 존폐의 위기가 달린 문제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그렇다.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FTA를 활용한 수출증대에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확산이 시사하는 바를 고려한 중장기 중소기업 정책방향이 부재한 것이 아쉽다.

GVC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사슬이 전 세계적으로 분화되고 개별 사슬별로 각각의 가치가 창출되는 패러다임을 뜻한다. 특정 상품 등의 디자인에서부터 생산 그리고 판매 후 서비스까지의 모든 비즈니스 활동 단계가 가장 효율성이 높은 지역을 찾아 전 세계에 걸쳐 발생한다는 것이다. 글로벌대기업들은 수송기술과 정보통신기술(CT)의 발달 그리고 FTA의 확산 등에 힘입어 GVC를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형적 교역규모보다 부가가치 높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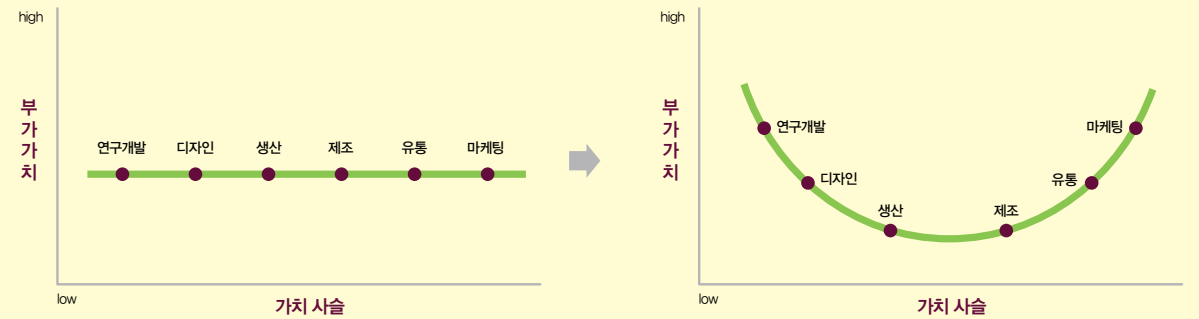
GVC의 시각에서 눈여겨볼 현상들이 있다. 먼저,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공동

으로 통상적인 교역을 GVC에 기반한 부가가치교역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한국 총수출가운데 국내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가 2009년 기준 59%로 OECD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외형적 교역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수출하는데 소요된 부품·소재 등의 수입비중이 여타 OECD국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으로 주의를 요하는 것은 소위 스마일커브(smile curve) 현상이다. 이는 횡축에 연구개발(R&D)·디자인·생산·조립·유통·마케팅 등의 기업활동을 순서상으로 배열하고 종축에 이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측정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커브가 과거에는 다소 평평했으나 차츰 스마일커브화되는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생산이나 조립과 같은 유형활동과 R&D나 마케팅과 같은 무형활동이 생성하는 부가가치 수준이 비슷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유형활동보다 무형활동 사슬에서의 부가가치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더욱 주의를 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형활동보다 무형활동 사슬에서 더욱 많은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글로벌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보면 크게 두 가지 과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거시적 측면에서 국가산업전략을 전반적으로 GVC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가 혹은 산업 경쟁력 원천은 자

스마일커브(smile curve) 현상



과거에는 생산·조립과 같은 유형활동과 연구개발·마케팅과 같은 무형활동이 생성하는 부가가치 수준이 비슷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유형활동보다 무형활동 사슬에서의 부가가치가 커지고 더 많은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과 관련해 글로벌가치사슬(GVC)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국 산업과 거기에 딸린 기업들이 어떠한 사슬을 주도하며 또한 해당 사슬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부가가치 창출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우리 개별 산업이 GVC상에 점하고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실제로 개별 산업이 창출해 내는 부가가치나 고용의 질을 고려하여 우리 산업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FTA 추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둘째, 앞서 거시적 산업전략의 연장선상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화전략을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FTA 확산은 수출확대의 기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은, 글로벌시장에서 글로벌대기업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대기업 등의 다양한 가치사슬에 협력기업 형태로 있다는 것이 현실적 시각이다. 이런 관점에서, FTA를 수출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나, FTA로 확대되는 GVC로의 편입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욱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과제일 수 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수출이나 해외진출을 장려함으로써 얻어지는 양적인 차원의 국제화가 실질적으로 어떤 질적인 가치를 생성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GVC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대기업과 관련되는 중소기업 경쟁력이 결국 해당 GVC상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나 고용의 실질적인 질을 담보한다.

‘한국형 GVC 지배모델’ 구축 필요해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국가적 전략을 추진할 필요

가 있다. 첫째, FTA로 확대되는 우리 경제영토를 고려하여 산업별 GVC지도를 작성하고 국내 중소기업 위치를 파악하여 ‘한국형 GVC 지배모델’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자동차, 조선, 전자산업 등의 GVC를 지배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간 기업네트워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으로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FTA 확산에 대비한 국가산업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부가가치 사슬로의 이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융합산업 경쟁력제고 전략이 필요하다. GVC 확산은 서비스 산업 경쟁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창조경제의 핵심은 융합에 있다. 즉 서비스와 전통적 제조기술의 융합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의 초점은 작고 유연함으로 인해 혁신적인 변화에 적합하다는 측면에서 ‘지식기반 융합중소기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끝으로 FTA 대비 중소기업 대응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유연한 사고의 접근이 필요하다. 수출도 중요하고 국내 대·중소기업만의 GVC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도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GVC상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글로벌 한국중소기업의 육성이다. 지나치게 국내에 편향되고 수출에 고착화된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시각의 한국 중소기업 국제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㉞

에르난 브란테스 주한 칠레 대사 “양국 소비자 선택권 커져... 다양한 교류 협력도 성과”

서울 충무로의 한 건물에 자리한 칠레대사관에서 만난 에르난 브란테스 주한 칠레 대사(62)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인상이었다. 백발에 흰 수염 덕분에 이태원의 단골 가게에서 ‘산타클로스’로 불리기도 한다. 2010년 8월 부임 이후 자녀들을 불러 국내 대학 MBA에 진학시킬 정도로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한·칠레 FTA 10주년을 맞아 인터뷰를 가진 브란테스 대사는 비교적 긍정적인 언어로 간단명료하게 답했지만, 한국이 시장을 더욱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4월 1일로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칠레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양국간 FTA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한 FTA가 두 나라에 모두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두 나라 모두에 도움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양국의 소비자들은 품질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바람직한 조건이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는데, 이런 관점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칠레 국민들은 자동차·전자제품을 비롯한 높은 품질의 한국산 첨단제품을 보다 쉽게,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게 됐고, 한국 국민들은 식품들을 합리적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양국 기업들은 수출산업에서의 전략 상품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제품에 대한 양국 소비자들의 기대치와 함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FTA 이후 칠레산 와인은 한국에서 매우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또한 와인 가격 인하 외에도 한국인이 누린 혜택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한국에서의 칠레산 와인의 인기는 매우 간단하고도 명확합니다. 좋은 품질과 합리적 가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칠레산 포도, 키위,

견과류, 돼지고기, 연어, 농어, 홍어 등과 같은 농식품들이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에게 알려져 왔습니다.

한·칠레 FTA 이후 칠레의 국민들은 어떤 혜택을 입었습니까?

이미 한국산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에 더해 선박, 정밀기계, 보일러, 휴대폰, 퍼스널 컴퓨터, 텔레비전을 비롯한 많은 한국산 제품들을 통해 칠레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보다 좋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혜택 외에 양국간 FTA가 정치·외교·문화적 교류 증대에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FTA를 통해 양국은 더욱 견고한 연결고리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상품무역 외에도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 문화 교류, 투자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교육, 환경, 과학기술 이슈에 대해 세계 많은 지역에서 협력이 있었고, 이는 양국 간 조율 및 정치적 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지금 칠레에서 K-팝의 인기가 커지고 있는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전해진 덕입니다. 이렇게 문화를 열고 매출이 늘어난 것은 전적으로 FTA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르난 브란테스(Hernán Brantes) 대사는,

1952년생. 산티아고 대학교(공공설계학 전공), 칠레외교아카데미 졸업.
1994~1997년 주케이프타운 총영사.
2000~2003년 주밀라노 총영사.
2003~2005년 주코르도바 총영사.
2008~2010년 주부에노스아이레스 총영사.
2010년 주한 칠레 대사, 주몽골 대사 겸임(현).

한국과 마찬가지로 칠레 또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까? 또 한국이 배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46개국과 맺은 9건의 FTA를 발효하고 있으며, FTA 경제영토는 56.2%에 이릅니다. 칠레의 경우는 51개국과 17건의 FTA를 발효하고 있으며 경제영토는 78.2%에 달합니다(이상 2013년 기준). 상세히 살펴보면, 칠레의 대외교역은 지난 10년 동안 170%나 증가했는데, 우리(칠레)는 아직도 이를 더 확장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FTA의 평가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FTA의 성과에 대해 얘기할 때 무역수지에 미친 영향과 같은 미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중요하고 유의미한 이슈들은 놓치면서,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얻는 가시적, 직접적 이득에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다른 나라들에서 굉장히 싼 물건들, 이를테면 과일, 쇠고기, 생선과 같은 것들이 한국에서는 비싼 가격으로 저소득층이 소비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은 일반적인 선량한 국민들과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이 시장을 더욱 자유화해야 한다는 저의 생각을 더 굳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Chile

수출 초보기업 지원 프로그램-①한국무역협회 '수출 스타트업'

수출 A부터 Z까지... 원-스톱 지원으로 해결한다

한국무역협회 '수출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수출을 처음 시작하려는 내수기업, 전년도 직수출실적 100만 달러 미만의 초보 수출기업이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무역 인프라 구축, 해외마케팅 및 수출금융 지원 등을 수출지원기관과 공동으로 제공하는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다.



정부 및 수출 유관단체들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해외 네트워크가 발달된 KOTRA의 경우 해외 마케팅에 강점을 갖고 있고, 중소기업청은 광범위하게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 스타트업'은 한국무역협회가 오랜 기간의 노하우를 축적한 교육 및 전문인력 채용 알선, 해외시장 정보 제공, 해외시장 개척 및 바이어 발굴, FTA 활용 컨설팅 등의 지원업무와 더불어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수출 초보기업이라면 원스톱으로

필요한 지원을 모두 제공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강점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4월 3일 기준)까지 총 206개의 기업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지역본부 등의 추천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의 윤용차장은 "수출 스타트업 전담직원을 두고 1대 1 밀착 마케팅을 하고 있어 지원받는 기업들의 반응이 좋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의를 해오고 있지만, 일단은 수출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먼저 지원하고, 점차 많은 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무역실무역량 업그레이드를 위한 단계별 연수 과정

① 무역실무 온라인 기본교육

수출입 업무의 시작부터 끝까지, 필수적인 수출입절차 과정을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다.

교육기간	연중 상시
교육기간	•수출입절차 개요(16강) •한 달 만에 끝내는 무역실무 핵심정리(30강) •사례로 배우는 실전 무역실무(21강)
비용	무료

② 해외마케팅 종합실무 교육

무역실무 집중 연수과정을 통해 해외마케팅 종합역량을 가진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다.

교육기간	6월, 10월 중 (제1단계 교육 완료 후, 예정), 3박 4일/24시간
교육기간	•무역실무 종합정리/해외마케팅 전략수립 •시장조사/바이어 발굴/바이어 응대 및 협상 •해외 전시회/시장개척단 마케팅 •온라인 해외 마케팅/사례분석(Case Study)
비용	2만원/1인(수강료/숙박/식사 등 제반 비용 포함, 80만 원 할인 혜택)

※일정 및 교육내용/비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영문 e카탈로그 제작 지원

수출상품의 홍보용 영문 e카탈로그 제작과 온라인 홍보를 지원한다.

지원내용	•영문 e카탈로그 및 e북, QR코드 등 온라인 홍보용 미디어 제작 (1년간 무상 유지보수 지원) •tradeKorea.com 자동 게시를 통한 신규제품 홍보 •협회 보유 바이어 DB 대상 타겟 마케팅 실행)
비용	무료

트레이드 벤처플라자 입주 우대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및 COEX, 지방무역회관 내 사무공간인 트레이드 벤처플라자 입주 신청 시 우대 혜택을 준다.

시설 현황	•서울: 48개실(트레이드타워 18개실, 코엑스 30개실) •대구경북: 5개실 •광주전남: 8개실 •대전충남: 10개실
비용	전화 문의 시 안내

온라인 해외바이어 거래 알선 서비스

바이어 검색부터 거래제약서 제작 및 검색 바이어 대상 메일링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지원내용	무역협회 보유 전 세계 바이어DB 대상 국내업체가 직접 바이어를 검색하고, 자동으로 C/L(거래제약서) 제작해 검색 바이어에게 메일발송 가능
신청조건	•tradeKorea 가입 시 바이어 마케팅을 위한 200크레딧 제공 (1크레딧 당 1건의 바이어 대상 마케팅 메일 발송 가능) •200크레딧 부여일로부터 1년 후 자동으로 200개 부여 (미사용 시 1년 후 자동 소진) •1회 통보메일 발송 건수 20건으로 제한
비용	무료

무역기금 융자

저리의 무역기금 융자로 수출마케팅 자금을 지원.

지원내용	•업체당 2억 원 한도 •융자 조건: 3년 만기(2년 거치 후 연 4회 균등 분할 상환), 연 4% 금리
홈페이지	http://fund.kita.net

통번역 서비스 제공

외국어 전문 인력이 없는 내수 기업과 초보 수출기업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영어, 중국어 등 18개 언어 •150만 원 한도
비용	업체당 100만 원까지 무료(150만 원 한도, 100만 원 초과 시 업체부담금 30%)

수출보험·보증 지원(무역보험공사)

첫걸음 중소기업 우대지원제도	지원대상	•무역보험 최초 이용 중소기업 •최근 2년 이내 이용 실적 없는 무역보험 재이용 중소기업
	적용상품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우대사항	•무역보험·보증료 50% 할인 및 신용조사 수수료 면제(최대10회) 등 •최대 지원보험료 100만 원 이내로 제한
청년 창업 수출기업 희망보증	지원대상	창업 3년 이내의 청년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을 지원.
	지원내용	•창업 3년 이내 수출기업 •수출실적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수출신용보증 지원
	우대사항	•보증비용 우대 : 100%

수출금융 지원(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

금리 우대 및 한도 확대 등 맞춤형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

금융조건 우대 내용	①대출금리: 최대 0.5%p 인하 적용 ②대출한도 •포괄수출금융: 수출실적의 100% 이내(현재 여타 기업은 70% 수준) •해외시장개척자금 대출 : 승인직전년도 수출실적의 1/2 이내(현재 여타 기업은 1/3 이내) ③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조건 완화 •수출이행능력/수출거래안전성 평가 기준: 70점 → 60점
---------------	--

FTA 맞춤형 상담 및 현장컨설팅

FTA 전문가 풀(pool)을 이용한 상담 및 방문 컨설팅, 교육을 통해 귀사의 FTA 활용을 도와준다.

지원내용	①FTA 맞춤형 상담 및 현장컨설팅(상시) •국내 최고 관세·회계법인 전문가들이 업체를 방문, FTA 활용 점검 및 교육 실시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FTA 활용의 전 과정을 지원 •원산지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지원 ②FTA 활용 멘토링 교육(분기별 1회) ③수출 스타트업 참여 기업 FTA 활용 설명회 개최
비용	매출액에 따라 컨설팅 비용의 70~100% 지원

토목섬유 전문 수출업체, 대운지오텍

대기업도 포기한 수출길, 중소기업이 열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나은 경쟁력을 가질 때가 있다. 대기업이 사업을 접은 전기밥솥을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으로 만든 것은 중소기업이다. 이와 비슷하게 토목공사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토목섬유 분야에서 한 중소기업이 틈새를 파고들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는 곳이 있다. 서울 마포대로의 작은 사무실에서 큰 꿈을 키우고 있는 대운지오텍이 그 주인공이다.



직원 42명 규모의 작은 기업이지만 대운지오텍은 지난해 '오백만불 수출탑'을 달성에 이어 올해 800만 달러, 내년 1,000만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목공사의 필수품인 토목섬유는 강도가 다른 연약지반을 균일하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섬유와 달리 수십 톤의 힘을 가해도 찢어지지 않는다.

땅속의 모습은 다양하다. 암반도 있지만, 연약 지반도 있다. 그러나 아파트·도로·철도·항만 등이 땅의 성질을 가려가며 지어지진 않는다. 연약지반이라도 극복해내야 하는 것이 토목기술이다. 토목섬유의 역할은 무른 정도가 각기 다른 연약지반에 균일하게 버티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다. 갯벌을 걷다 보면 갑자기 폭 꺼지는 곳이 생기는데, 그 갯벌 위에 넓은 천을 평평하게 깔게 되면 무른 곳이라도 폭 빠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되는 원리다. 실제 토목공사에는 땅 위로 사람이 아닌 중장비, 자동차, 기차, 건축물이 올라서게 되므로, 찢어지지 않고 강력하게 버티는 힘이 필요하다. 1m당 30톤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강도를 지닌 것이 토목섬유다. 요즘은 웬만한 현장의 기초공사에는 대부분 토목섬유가 들어간다.

흔쾌해진 국내시장 대신 해외시장 두드려

해외에서 토목섬유를 쓴 것은 200년 전부터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에서는 1973년 완공한 아산만방조제에서부터 쓰인 것으로 알려져며,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1990년 착공한 서해안고속도로에서부터다. 토목섬유는 1980년대 합성섬유로 유명한 국내 대기업에서 개발·생산을 시작했지만, 시장규모가 한정되어 있어 그다지 빛을 보지 못하는 분야였다. 그러다 보니 품질개선이나 수출을 시도하는 업체

도 없었다. 대기업에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으로 납품하던 회사에서 토목섬유 부문만 떼어 2006년 분사한 것이 지금의 대운지오텍이다.

이 회사 이장기 대표는 “다른 산업 섬유에 비해 시장 성장성과 수익성이 낮아 2000년대 말까지 긴 시간동안 저가수주, 저급품질, 가격미달제품 공급 등으로 시장이 혼탁해져 있었는데, 이런 악순환을 끊고 세계적 토목섬유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분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분사 이후 5년에 걸쳐 기존 설비를 교체하고 김천에 신규 공장을 설립했다. 국내 최초로 폭 3.6m(기존 2.1m)의 광폭제직 설비를 갖추고 글로벌 스탠다드(ISO 9001) 품질을 확보했다. 2012년에는 기술연구소를 설립해 고기능성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좁은 국내시장이 아니라 해외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운지오텍은 초기부터 수출시장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개척해오고 있다. 2010년 ‘백만불 수출탑’, 2012년 ‘삼백만불 수출탑’, 2013년 ‘오백만불 수출탑’을 달성하며 수출량을 늘리고 있다. 이장기 대표는 “올해는 800만 달러, 내년은 1,000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회사는 베트남 시장을 주력으로 수출 중인데, 현지 시장에서 점유율 70%를 달성할 정도로 가격과 품질에서 인정을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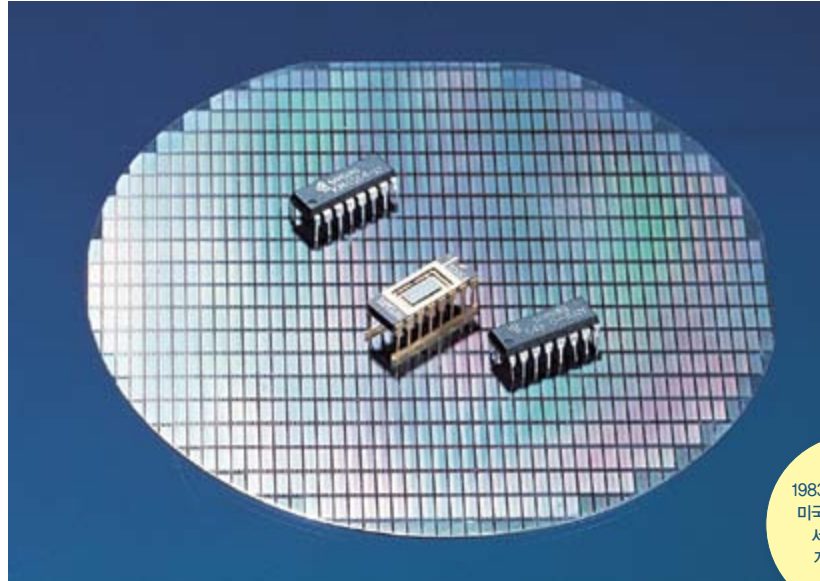
고 있다. 이 대표는 “네덜란드·독일·미국 업체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고사양 제품 위주이다 보니 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가 해볼 여지가 많다”고 비결을 전했다.

한·아세안 FTA로 12% 관세철폐

현재 대운지오텍이 생산하는 토목섬유는 폴리에스터 우븐 지오텍스타일(polyester woven geotextile)로 HS코드 5407.10에 해당한다. 주요 수출처인 베트남에서 해당 품목의 수입관세는 12%지만, 한·아세안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돼 FTA 활용의 실익이 큰 제품이다. 한·아세안 FTA에서의 원산지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RVC(역내 부가가치) 40% 이상이다. 토목섬유 역시 섬유의 일종으로 구매한 원사를 직조해 완제품을 만든다. 재료인 폴리에스터 강력사의 HS코드는 5402.20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만족하고 있어 FTA 활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대운지오텍은 베트남 수출을 기반으로 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을 공략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EU,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5.2m 광폭직기를 개발해 내년 생산을 앞두고 있다. 이미 폴란드 등 유럽 지역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원사기준을 적용하는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산 원사를 구매해 해결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의 쌀' 반도체



1983년 삼성전자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로 개발·생산한 64K D램.

반도체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주력 수출 상품의 하나로 손꼽힌다. 2014년,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섰다. 지난 1983년, 삼성전자가 64K D램 개발에 성공하며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 지 30년 만의 일이다.

국내에서 반도체 산업이 시작된 것은 약 반세기 전이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외국 자본의 적극적 유치가 시작됐고, 반도체 산업도 외국기업들의 진출에서 비롯됐다. 1965년 미국의 코미그룹이 처음으로 국내에 고미반도체를 설립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막을 연 이래, 페어차일드·모토로라 등 미국계 반도체업체들이 속속 한국 땅에 공장을 세웠다.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기술집약적·자본집약적 산업이지만, 단순 하도급 조립에 불과했던 당시의 국내 반도체 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특

성도 갖고 있었다.

그러던 1974년 12월, 이견희 동양방송 이사(현 삼성전자 회장)가 사재를 털어, 파산 직전이던 한국반도체의 50% 지분을 50만 달러에 인수했다. 한국반도체는 부천에 국내 최초의 전공정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었다. 당시는 전 세계가 오일쇼크의 한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던 때였다. 삼성의 상황도 좋지 않았다. 재계와 전자업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출한 삼성전기와 삼성전관은 경영난에 봉착해 있었다. 반도체 사업에 대한 투자 명분도 없고 여력도 없는 상황에서 자연

스레 반대 의견이 높았다. 비서실에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견희 이사는 전자 부문을 회생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반도체에 달려있다고 판단해 과감한 선행투자를 감행했다.

처음엔 삼성의 '해물단지'였다

한국반도체의 지분을 매입한 이유는 '반도체의 자급'에 있었다. 삼성그룹의 전자 부문 자회사들은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를 만들 자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반도체 주수입선인 일본 업체들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한국반도체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트랜지스터 생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생산품목을 갖추지 못했고, 사업을 확대할 자금조차 부족했다. 1978년 삼성전자는 혼자 힘으로 버티기 힘들어진 한국반도체를 흡수해 반도체사업부로 개편한다. 또한 원진전자의 용인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확장하는 한편, 자본금을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자하고, 그룹 내 중간 간부를 반도체사업부에 포진시켜 힘을 실었다.

그러나 악화일로는 계속됐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자체 설계 부문이 없는 것이었다. 반도체는 조금만 개발이 늦어져도 금세 도태되는 제품이다. 남이 개발해 놓은 제품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시장 개척은커녕, 제값 받는 것조차 힘들게 했다.

급기야 삼성반도체는 자본금을 모두 잠식한 채, 몇 번이고 가까스로 부도의 위기를 넘기곤 했다. 언론에서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지적하기 시작하며,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의 사례를 들었다. 사내 분위기도 좋지 않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분은 그룹 내에서 '아오지 탄광'으로 불렸다.

이 때 팔을 걷고 나선 이가 이병철 회장이었다. 이병철 회장은 부진의 원인을 경험 부

족에서 찾았다. 이에 대한 처방은 삼성보다 훨씬 앞서 반도체사업을 해 온 A사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었다. A사의 과장급 엔지니어 너댓 명이 서울에 머물면서 부천공장을 살살이 둘러보고 돌아갔지만 도움이 될 만한 말은 하지 않았다. 이병철 회장은 A사에 다시 한 번 반도체 기술을 요청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다. 그러나 이것은 역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더 집중하게 만들었다.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에서 가능성을 찾게 된 것이 이 무렵이다. 반도체 강국이었던 일본이 오일쇼크를 겪으면서도 무역후자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 배경에 반도체로 대표되는 첨단기술 분야가 있음을 직감했다.

1983년 '도쿄 선언'으로 금물살

1983년 2월 8일, 결심이 선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에 삼성의 명운을 걸겠다는 '도쿄 선언'을 천명한다. 그룹 차원에서 반도체 사업에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한 달 후에는 삼성그룹의 이름으로 '우리는 왜 반도체사업을 해야 하는가'라는 선언문을 공식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64K D램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64K D램은 VLSI(초고밀도 집적회로)급 반도체로 당시 삼성전자의 수준은 이보다 낮은 LS(고밀도

집적회로)를 간신히 생산하는 단계였다.

반응은 냉담했다. 정부와 언론 등은 일제히 반대했다. 재계는 삼성에 반도체사업 진출을 당분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텔은 '과대 망상'이라며 비꼬았고 일본 미쓰비시 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내놔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독심으로 밀어붙였다. 미국의 반도체 벤처 기업인 마이크로과 일본의 샤프와 기술 제휴를 맺었고 반도체 전문가를 영입하는 데 힘을 쏟았다. 1983년 9월 첫 삽을 뜬 기흥 공장을 6개월 만에 완공시키는 저력을 보였다.

기술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해 5월 출범한 64K D램 기술개발팀은 조립 시험생산에 들어간 지 40일 만에 수율(합격품의 비율)을 일본 업체에 근접한 수준인 92%까지 끌어올렸다. 개발팀은 곧바로 공정개발에 착수해 11월 7일 64K D램 생산공정 개발을 모두 완료했다. 손톱보다 작은 칩 속에 8,000자를 기억할 수 있는 고밀도 반도체를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만든 것이다. 미국·일본과 달리 4K D램과 16K D램 개발 과정을 건너뛰고 단번에 64K D램을 개발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으로 미국·일본에 10년 이상 뒤져 있던 반도체 기술 격차는 4년여로 좁혀졌다. 같은 해 12월 12일에는 64K D램을 처음으로 수출했다. 공장도 지어지지 않았을 때다. 이듬해 9월에는 반도체 강국인 미국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후 1984년 256K D램, 1986년 1메가 D램, 1988년 4메가 D램, 1989년 16메가 D램을 차례로 개발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혀 나갔다. 1992년에는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을 개발해내면서 반도체 기술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6%로 인텔(14.8%)에 이은 세계 2위다.●



1984년 5월 17일 64K D램 생산전용인 삼성전자 기흥공장 제1라인이 준공되어 VLSI 반도체시대의 막을 열었다. 앞줄 가운데 손으로 입을 가린 사람이 이병철 회장.

비빔밥 : 한 손칼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비빔밥은 어딘가 우리네의 모습과 닮아 있다. 서로 다른 맛을 가진 식재료를 비비고 섞는 과정을 통해 최고의 맛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특징과 비슷하다. 비빔밥은 음식 한류 1호답게 유명 스타를 비롯한 많은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음식이다. 뉴욕에는 비빔밥 테이크아웃점이 생겨났을 정도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즐기는 한 손칼의 비빔밥 안에는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 그리고 한국인의 열이 담겨 있다.

지난해 11월, 영국 가디언 온라인판에 칼럼 하나가 게재됐다. 제목은 '최고의 힐링 음식(the ultimate comfort food)', 프리랜서 작가 클레어 포터(Claire Potter)가 작성한 글이다. 그녀는 비빔밥에 대한 간략한 소개 이외에도 '비빔밥의 어원' '비빔밥을 만드는 방법' '비빔밥을 먹는 방법' 등을 상세히 서술해 비빔밥을 알지 못했던 이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인들은 비빔밥을 먹으면 몸을 치유되고 추운 겨울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효능에 대해 설명하며 비빔밥에 대한 관심을 에둘러 표현했다.

비빔밥에 애정을 표현한 이는 클레어 포터 뿐만 아니다. 팝스타 마이클 잭슨은 내한공연 때 비빔밥을 먹고 극찬했다는 일화가 있으며, 여배우 기네스 펠트로르는 비빔밥을 만드는 영상을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리며, 날씬한 몸매의 비법으로 꼽기도 했다. 비빔밥은 한국 음식 중 최초로 기념식으로 등장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기도 하다.

어지럽게 섞은 밥이라는 뜻

비빔밥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800년대 말의 요리책인 '시의전서(是議全書)'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문헌에서는 비빔밥을 한자로 골동반(骨董飯, 汫董飯)이라 쓰고, 한글로 '부뽕밥'이라 적었다. 여기서 골동반의 골은 '섞을 골', 동은 '비빔밥 동'으로, '골동'이란 어지럽게 섞는다는 뜻을 지닌다. 여기에 밥 반자를 더하면 비로소 '이미 지어 놓은 밥에 여러 가지 찬을 섞어서 비빈 것'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비빔밥의 탄생에 둘러싸고 많은 설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궁중음식설이다. 조선시대 임금이 먹는 밥을 일컫는 수라에는 흰수라·팥수라·오곡수라·비빔 등 4가지가 있다. 비빔밥은 점심때나 종친이 입궐하였을 때 먹는 식사였는데, 여기서 발생했다는 설이다.

두 번째는 의례 음식설로서 다양한 제사와 의식 때 진설된 음식을 조상신 등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신인공식(神人共食)의 의식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이다. 요즘도 제사를 치른 다음 날, 남은 나물을 고추장과 함께 양푼에 넣고 쓱쓱 비벼 먹기도 하는데, 그 옛날에도 이 같은 풍습이 있었는지 모른다.

다음은 농번기 음식설이다. 농번기에는 하루에 여러 번 음식을 섭취하는데, 그때마다 구색을 갖춘 상차림을 준비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그릇을 충분히 가져가기도 어려웠으므로 그릇 하나에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 먹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설날 그믐 음식설이다. 설날 그믐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묵은해의 남은 음식을 없애기 위해 묵은 나물과 밥을 비벼 먹었다는 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건, 비빔밥이 오래 전부터 사랑을 받아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세계 어느 재료로도 변형 가능

비빔밥은 한국인을 제대로 표현하는 음식이다. 여러 가지 재료를 한 데 넣고 비빈다는 점에서 정을 나누고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비빔밥은 섞고 비비는 음식 가운데에서도 한국 문화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재료와 밥을 한 그릇에 몽땅 집어 넣고 먹는 식문화는 한국에만 존재한다. 볶음밥처럼 밥과 식재료를 넣고 불을 가열해 조리하는 문화가 곳곳에 있긴 하지만, 내오기 전에 섞는다는 점에서 비빔밥과 차이가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음식 재료들이 고추장, 참기름과 함께 버무려지면서 새로운 음식으로 재탄

생한다. 식재료 그대로의 개성을 간직하면서도 이것들이 하나로 섞였을 때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것은 비빔밥의 장점이다.

이런 특징은 비빔밥의 세계 진출을 수월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세계 각국의 식재료들과의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2013년 전주비빔밥축제에 등장한 메뉴들을 보면 알 수 있다.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 축제에는 새로운 메뉴들이 제시됐다. 선보인 것은 비빔또띠아, 바삭비빔볼, 비빔크로켓 등으로 세계의 유명 요리들과 결합된 다양한 비빔밥들이었다.

맛과 영양에서 뛰어난 재료 구성

비빔밥 한 손칼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다. 굳이 반찬을 곁들이지 않더라도 맛을 느낄 수 있거니와 영양적으로도 기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또한, 비빔밥은 건강식의 채소와 육류 비율인 8대2에 거의 근접하거나, 오히려 더 뛰어난 재료 구성비를 보인다.

외국에서는 비빔밥은 매운 맛에 익숙하지 않은 현지인들을 배려해 고추장 대신 간장을 사용하는 등 본래 제조방식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음식이란 세월에 따라, 장소에

따라 변모하기 마련이다. 사실 비빔밥에 고추장을 넣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만 무렵부터로 생각보다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최근 뉴욕에서는 비빔밥 테이크아웃 음식점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비빔밥의 맛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 그리고 한국인의 열이 미국 땅에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고유의 비비는 문화가 전 세계에서 '음식 한류'를 불러일으키는 촉매가 되길 바라본다.☺



지난해 2월 13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15면에 실린 비빔밥 광고. 'BIBIMBAP?(비빔밥?)'이라는 큰 제목 아래 한복을 우아하게 차려입은 이영애 씨가 살짝 웃는 표정으로 드라마 대장금과 비빔밥을 소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실린 비빔밥 광고는 한 달 뒤 연간 3,000만 명 이상이 몰려드는 중국 상하이 치푸루의 신쑤우 패션상가 건물 정면에 내걸렸다.



자유무역의 역사—④한국경제와 WTO

약소국들엔 WTO 필요... 강대국 무역압력 효과적 방패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 자유화의 일등 공신이다. 그런데 WTO 하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1990년대 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막바지에 농업 개방에 반대하는 국내 농민들의 시위가 봇물처럼 터졌고, 1999년에는 전 세계 비정부기구(NGO)들이 시애틀에서 WTO의 뉴라운드 개막을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러나 6.25 전쟁 이후 최빈국으로 몰락하였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처럼 잘 살게 된 것은 무엇보다 WTO의 혜택이 크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 초 겪었던 민족상잔의 전쟁으로 인해 1960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측에 속했다. 지금은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최빈국인 방글라데시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WTO의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하면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과 대외개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괄목할만한 성장을 일궈냈다. 1996년 세계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보고 '동아시아의 기적(East Asian Miracle)'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지금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와 같은 첨단 제품을 전 세계 무대에 팔면서 명실공히 세계 10대 통상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기까지 무엇보다 WTO가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01

'한강의 기적'엔 GATT·WTO 역할 컸다

우리나라는 1967년에 WTO의 모체인 GATT에 처음 가입했다. 이후 1995년 WTO 탄생과 더불어 WTO 회원국이 되었다. WTO는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에 관한 협상의 장을 제공하고, 이러한 협상 결과로 얻어진 협정의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하며, 협정 이행과 관련된 회원국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와 기구를 제공한다. 협정내용은 모든 국가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협정을 위반하면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상관없이 어느 나라나 제소할 수 있으며, 모든 회원국은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약소국은 결과적으로 협상력이 증가하게 된다. 왜냐하면 WTO와 같은 다자체제가 없다면 강대국들은 그들의 의사를 힘이 약한 무역상대국에게 강요하기가 더 쉬운 것이고 약소국은 강대국과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어 강대국의 압력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서 선진국들과 다양한 무역분쟁을 겪었으나, WTO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왔다. 일례로 우리 조선업계와 경쟁하는 자국 조선사에 대해서만 6%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EC(유럽공동체, EU의 전신)의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보고, 지난 2003년 이를 WTO에 제소했다. 패널은 2005년 2월 EC측의 규정이 WTO에 위배된다고 판정했고, 우리는 이 분쟁에서 승소함으로써 장기간 계속된 EC와의 조선 분쟁을 끝낼 수 있었다. 이처럼 WTO는 회원국들의 일방주의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수출을 괄목할 만하게 증가시킬 수 있었다. 내수 시장이 작은 우리 기업들에게 거대한 세계시장에 대한 접근은 가장 큰 선물이다. 기업들이 수출

WTO와 같은 다자체제가 없다면
강대국들은 그들의 의사를 힘이
약한 무역상대국에게 강요하기가
더 쉬운 것이고 약소국은
강대국과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어 강대국의 압력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을 늘리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 나감에 따라, 초기에 농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우리 산업도 이후 경공업, 중화학공업, 첨단산업 등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수출이 증가하면서 규모가 커진 기업들은 더 많은 인력을 고용했고 이에 따라 가계 소득과 국민 소득도 함께 늘어 갔다. 한편으로는 국내 시장을 개방하면서 생산에 사용되는 값싼 수입원자재 덕분에 생산비용과 가격이 내려가게 되었다. 또한 완성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만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 아니라, 국산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부품, 생산장비에 대한 선택권도 다양해지면서 기업들의 경쟁력도 날로 증가할 수 있었다.

02

국내 산업 구조조정의 지렛대 역할도

무역은 분명히 소득을 증가시키고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주지만,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산업도 있다. 이러한 부문에 속한 기업이나 근로자들은 좀 더 성장성이 큰 산업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은 WTO의 무역자유화에 대해 반대하고 보호주의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익집단이 정치적 영향력을 지나치게 행사할 때 경제전체에 비효율과 왜곡현상이 발생한다. 이 때 정부는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더불어, 보호를 요구

하는 이익집단들에게 국가경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WTO 규정 이행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익집단의 압력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개방을 통한 성장을 도모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측면에 기인하는바가 크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WTO 가입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좁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생산활동, 비합리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경제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WTO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과 같은 경제발전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훨씬 더 많은 세월이 소요되었을 것이며,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기회비용을 치러야 했을 것이다.

수출 산업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둬 온 우리나라는 앞으로 서비스 등 내수 산업을 키워야 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간의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려면 정부의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며, 서비스 분야에서 기득권을 향유하는 집단의 요구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WTO 시장개방 협상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적·질적 경제발전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WTO를 동반자 삼아 함께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의 FTA—③미국의 FTA

세계 최대 시장, 미국의 움직임에 세계가 주목

미국의 GDP는 16.2조 달러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시장(세계 GDP의 22.5% 차지)이다. 2013년 한 해에만 2.2조 달러 규모를 수입하고 있어 미국의 경기와 통상정책은 전 세계 국가의 관심 대상이다. 미국은 최근 일본을 포함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EU와의 FTA인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ISA(북수국간서비스무역협정), ITA(정보기술협정) 개정 등 각종 통상관련 정책을 경제정책 추진의 중심에 두고 있다.



최근 미국의 FTA는 경제적 목적

현재 미국은 20개국과 15건의 FTA를 발효 중인데, 우리나라와 호주를 제외하고 체결 국가가 주로 중남미 및 중동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는 미국이 과거 FTA 정책을 외교·안보적 관점에서 수립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체결한 최초의 FTA는 이스라엘과의 FTA로 1985년 발효 당시 이스라엘이 미국의 교역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약 1%에 불과했지만 양국 간 긴밀한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추진됐다.

2001년 이라크 전쟁 이후 부시 대통령이 세운 MEFTA(중동자유무역지대) 창설 계획 역시 중동과의 관계강화를 목표로 2006년 모로코, 바레인, 2009년 페루, 오만 등과 FTA를 체결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경제적 목적의 FTA

체결에 소홀했던 것은 아니다. 캐나다, 멕시코와의 FTA인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들과의 FTA로서, 역내무역과 투자·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인접한 칠레, 중미 7개국과의 FTA를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ASEAN과 FTA를 통해 적자 완화 및 관

계 강화를 꾀했으나 양 측의 경제적 격차 등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우선적으로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의 FTA 정책이 경제적인 유인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수출 증대를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한다는 국가수출구상(NEI: National Export Initiative)을 표명하고 적극적인 FTA 추진을 중심으로 통상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장기간 지연되었던 한·미 FTA 재협상 역시 이렇게 경제적 효과에 집중하는 흐름에서 체결된 것이다.

최근 미국의 FTA 정책은 TPP와 TTIP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2010년 TPP 협상을 시작한 미국은 칠레·브루나이·싱가포르·뉴질랜드·호주·베트남·페루·말레이시아·미국·멕시코·캐나다·일본 등 12개 국가와 함께 높은 개방 수준의 포괄적 FTA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 미주, 대양주 국가를 아우르는 TPP 참여를 통해 세계로의 수출을 확대하고 세계 통상질서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2013년 8월에 19차 협상까지 진행되었고, 2013년 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일본의 농산물시장과 미국의 자동차시장 개방 여부가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되며 미국과 일본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어 타결이 늦춰지고 있다.

더불어 2013년에는 EU와의 FTA인 TTIP 협

최근 미국의 FTA 정책은 TPP와 TTIP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시아, 미주, 대양주 국가를 아우르는 TPP 참여를 통해 세계로의 수출을 확대하고 세계 통상질서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상을 시작해 향후 세계 최대의 시장인 두 경제권의 통합이 기대된다. TTIP는 현재 4차 협상(2014년 3월)까지 진행되었으나 GMO(유전자조작식품), 농업보조금, 환경 등의 쟁점 대립으로 인해 타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FTA 추진, TPA 부여가 핵심

미국의 FTA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특정시기에 FTA 체결 및 발효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부시대통령 집권 이후인 2001년~2009년에 미국이 현재 발효한 FTA 대부분의 체결 및 발효가 이루어졌다. 이는 미국의 특수한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촉진권한) 제도와 관련이 있다. 미국은 의회가 외국과의 교역에 대한 권한을 가지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외국 정부와의 효율적인 협상이 쉽지 않다. 행정부가 협상중인 모든 FTA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비용 등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회는 행정부에 무역협상권한을 위임하고, 의회는 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수정 없이 찬반만을 투표하는 것이 TPA의 핵심이다.

NAFTA를 체결·발효한 1차 TPA(1974~1994)가 만료된 이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부시 대통령 시기인 2002년부터 2007년 6월까지 다시 한 번 TPA가 부여됐다. 최근 미국이 체결한 FTA는 모두 이 시기에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FTA 역시 TPA

의 만료 이전인 2007년 4월 협상 타결과 6월 30일 서명을 마무리했다. 그만큼 TPA의 존재 여부는 미국의 FTA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TPP 협상 타결을 위해 행정부가 계속해서 의회에 TPA 부활을 요구하는 까닭이다.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 TPP 타결의 분기점

지난 해 말 타결을 목표로 삼았던 TPP는 최근 일본과 미국의 쟁점 사항 대립으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미국이 TPP 타결에 힘을 실었던만큼 단시간 내에 타결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시장과 농업시장에 대해 대립각을 세운 미국과 일본의 협상은 쉽지 않았다.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TPP 타결의 중요시점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월 23일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아시아 순방이 예정되어 있다. 12개국이 참여하는 TPP 협상에서 가장 이견을 보이고 있는 양측의 대표가 만나는 만큼 이 때 이뤄질 두 정상의 합의가 사실상 TPP 타결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특히 미국은 11월에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상반기 이후에는 모든 논의가 선거 이슈에 초점을 맞춰질 것이다. 따라서 TPP가 2014년 내에 타결되기 위해서는 이번 오바마 대통령 순방에서 일본과의 TPP를 마무리시켜야 한다.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여기에 있다.☞

원산지관리 실무-③생산입증서류(제조공정도) 및 거래관계증빙자료 등

우회 수출 우려하는 상대국 위해 제조공정도 보관해야...

세번(HS코드)이 변경되는 등 각 FTA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물품의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가공만을 수행한다면 그러한 가공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각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기준 이상의 가공을 하였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도가 필요하다.

제조공정도

불인정 공정기준이란 수출물품의 HS코드마다 부여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각 FTA 협정별로 정하고 있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되면 당해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준이다. 따라서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판정 전에 국내에서 수행된 가공활동이 적용받고자 하는 FTA 협정상의 불인정 공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섬유제품

등 원산지결정기준에서 특정 가공을 역내에서 하도록 하는 가공공정기준인 경우 제조공정도는 원산지판정의 핵심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듯 원산지 입증서류로서의 제조공정도란 수출물품이 국내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생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이다. 원산지소명서 상에서도 주요 생산공정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작성된 제조공정도를 기초로 하여 공정내역을 단어 등으로 함축하여 표시하면 된다.

제조공정도는 배포되고 있는 서류양식이 있기는 하나 별도의 법정양식은 없으므로 각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완성품 생산까지 순서대로 주요 공정 위주로 기술·나열하도록 한다. 제조공정도에서 사진은 필수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넣는 것이 좋다.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설비 및 공정 순서를 자세히 기술하여 실제 공정을 수행하였음을 입증되어야 한다.

동일한 모델·규격의 동일 제품일 경우 생산공정이 완벽히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제조공정도는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HS코드가 같다 하더라도 다른 제품이거나 적어도 모델·규격이 다른 경우에는 생산공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제조공정도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반복 사용되고 있는 제조공정도라 하더라도 제조공정이 변경되면 반드시 최신의 제조공정으로 유지·반영하여야 한다.



작성 예시(실제 제품의 공정을 바탕으로 가상의 회사와 직원으로 작성)



FTA 역내가공원칙에 따라 역외가공은 대부분의 협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인정하고 있더라도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역외가공이 이뤄진 경우라면 인정 여부에 대해 정확히 확인 후 역외가공 부분을 제조공정도 상에 표시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준비하도록 한다.

국내에서 충분한 공정을 거쳐 불인정공정 이상의 가공을 했음을 체크하기 위한 제조공정도 역시 원산지판정의 기초서류다. 따라서 다른 원산지입증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류 발급 후 5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거래관계 증빙자료 및 가격 증빙자료

원산지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는 품목분류 근거자료, BOM(원재료명세서),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공정 증빙자료 외에 부가적으로 거래관계 증빙

자료 및 각종 가격 증빙자료가 요구된다.

원산지소명서와 BOM에 작성된 수출물품 및 원재료에 대한 출납·재고 관리대장을 비롯한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송품장 등 증빙 자료를 보관·관리해야 한다. 특히,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된 경우 제조원가계산서의 수출물품 및 원재료에 대한 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 지급 증빙자료 뿐 아니라 운송·보험·통관 등의 부대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수적으로 구비해 보관해야 하며 원산지 검증 당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 물품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는 검증대상 및 원산지기준에 따라 제시된 자료 이외 기타의 추가 자료 및 방법 등으로 달라질 수 있다.☹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④담배·전자담배·금연보조제품

전자담배는 담배대용품(2403호) 아닌 기타 전기기기(8543호)에 속해...

최근 사회적으로 금연을 강조하는 분위기 때문에 한국 내 담배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단일품목으로는 제조담배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흡연의 유해성 때문에 전자담배와 금연보조제 등도 애용되고 있다. 비슷한 듯 달라 보이는 담배, 전자담배, 금연보조제 등을 품목분류 측면에서 살펴보자.



과거 우리나라는 전자담배를 담배대용품(HS 2403호-씹는담배, 코담배, 제조담배 대용품 및 담배엑스와 담배 에센스 등)으로 분류했으나, 미국·유럽 및 세계관세기구(WCO)의 분류방식에 따라 지금은 '기타의 고유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속하는 HS 8543.70호로 분류하고 있다.

전자담배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금연을 시도해 본 사람은 금연이 얼마나 힘든 줄 안다. 금단현상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최근 각광받는 금연 보조제품이 있는데, 바로 전자담배다. 전자담배는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공기 형태로 흡입하게 만든 특수 담배장치이다.

담뱃불과 비슷한 색을 내는 발광다이오드(LED)와 배터리가 결합된 본체와 액체 니코틴을 기체로 바꾸는 장치, 니코틴 액체를 담은 카트리지로 구성되어 있다. 담배필터에 해당하는 카트리지를 빨면 전자담배 내부에 압력이 발생해 LED에 불이 들어오고, 액체 니코틴이 기체로 바뀌며 입 안으로 들어온다.

따라서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는 달리 액체로 구성된 카트리지를 연기가 아닌 수증기로 기화시키게 되어 불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태울 때 생기는 유해물질인 타르, 일산화탄소 등이 나오지 않아 담배에 비해 건강에 지장을 덜 주며, 또한 화재, 간접흡연 등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 일반 담배와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원통형 본체(LED램프, 건전지, 센서, 기화기 등으로 구성)와 본체에 결합하는 담배 필터 모양의 흡입부(카트리지) 및 배터리 충전기 등이 소매용 세트 포장된 전자담배는 어디로 분류가 될까? 담배처럼 생기긴 했어도 엄연한 전기기기(84류~85류)가 아닐까? 아니면 담배(24류)로 분류해야 할까?

전자담배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역시 전기로 작동될 뿐 결국 니코틴이 들어 있으므로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에 따라, 과거 우리나라는 품목분류 측면에서도 전자담배는 '수증기를 유발하는 전자장치를 통해 니코틴 증기를 흡입해 담배를 피운 것과 같은 만족감을 주는 물품'이므로 담배로 보아 기타의 담배대용품이 분류되는 HS 2403.99호에 분류해 왔다. (HS 2403호의 해설서에 따르

면 씹는담배, 코담배, 제조담배 대용품 및 담배엑스와 담배 에센스가 분류된다.)

그러나 미국 및 유럽에서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HS 8543호에 분류하고 있고, WCO(세계관세기구)에서도 전자담배를 기타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 8543.70호에 분류함에 따라 관세청도 2011년 전자담배세트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즉, 전자담배는 교환식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용액을 수증기 상태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전기기기이므로, 그 주된 특성을 본체의 전자담배용 용액을 전기적 작동으로 기화시키는 원리로 보고 '기타의 고유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속하는 HS 8543.70호에 분류하도록 했다.

FTA 측면에서 HS 2403.99호는 원산지결정기준이 한·미 FTA의 경우 HS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한·EU FTA의 경우 완전생산기준(WO)이 적용되었으나, 전자담배의 품목분류가 HS 8543.70호로 변경되면서 한·미 FTA 및 한·EU FTA 각각 HS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과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완화돼 비교적 쉽게 원산지 충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를 구성하는 카트리지 및 카트리지용 충전용액도 각각 별도로 제시된 경우에는 니코틴 함유여부에 관계없이 담배대용품이 아닌 HS 3824.90호의 기타 화학조제품으로 분류한다. (HS 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이 분류된다.)



금연보조제품 중 니코틴 추정검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HS 2106.90호)'에, 니코틴 패치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HS 3824.90호)'에 분류된다.



각 국가는 일반적으로 담배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여하고 있으며, 담배를 통해 각종 세금을 걷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담배시장은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FTA를 통해 전 세계 담배시장 역시 개방되고 있다. 담배는 HS코드(이하 HS) 24류에 분류되는데 특히 시가 및 결련담배는 HS 2402호에 분류되며 보통의 필터담배는 HS 2402.20호에 분류된다. HS 2402호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까다로운 국가가 많다. 일반적으로 제조담배는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쉽게 원산지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FTA의 원산지기준에서는 해당 국가의 잎담배를 일정 비율이상 사용했을 경우에만 원산지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혜택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금연보조제품

전자담배 외에도 금단현상을 줄이기 위한 금연 보조제품에는 각종 금연 패치와 니코틴 껌 등이 있다. 이러한 금연보조제품은 품목분류상 HS 30류의 의약품이 아니며 HS 2106호의 조제식료품 또는 HS 3824호의 기타 화학공업 조제품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일시적인 흡연 갈망 현상이 일어날 경우 구강점막을 통해 소량의 니코틴을 흡수하도록 하여 금단현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니코틴 추정검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호에 분류된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니코틴 패치는 피부에 붙이면 일정량의 니코틴이 천천히 몸 안에 흡수되어 흡연 욕구를 줄여주는 보조제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으로 보아 HS 3824.90호에 분류된다.㉞

생산과 관련된 자료 확보 필요

우리나라 생산자들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면서 미국 세관은 이들 제3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와 간단한 가공(불인정 공정)이나 포장 등을 새롭게 한 뒤 선적서류 및 원산지국을 한국산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이 제3국에서 가공되지 않고 역내에서 가공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가 바로 '생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들 자료는 단순히 '제조공정도'를 첨부함에 따라 증빙되는 것이 아니다. 제조공정과도 함께 원재료가 구매되고 생산에 투입되어 제품이 생산된 이력, 즉 원재료와 제품의 수불내역이 관리되고 원

재료 구매 자료(거래명세서 등), 정확한 소요량 데이터(소요량 명세서)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요청사항

미국 세관이 요구하는 정보는 공장 생산정보(원료 구입 명세서, 운송 증빙서류, 거래명세서, 생산정보, 주문확인서 등)를 비롯한 각종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정보는 역내 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와 외국에서 생산된 경우를 구분해 요구한다. 또한 하청 생산공장과의 거래내역, 미국 바이어로 부터 받은 신용장 사본과 지불 증명서, 수출 선적서류, 하도급 공장과의 거래기록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사후검증 따라잡기-④정보제공요청서 대응II

미국 세관, 우회 수입 주시... 생산 관련 자료 확보해야

미국은 일찍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면서 자국의 세관 공무원에게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을 통해 수출업체들이 위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많은 사례를 숙지시키고 있다. 특히 협정국이 제3국과 인접해 있는 경우 우회수입을 우려하여, 실제 역내에서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달에 이어 미국 세관(CBP: U.S. Customs & Border Protection)의 정보제공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좀 더 알아보자.

CBP Form 28 실제 사례

REQUEST FOR INFORMATION

Entry Number: _____ Request Date _____

This entry will be held pending submission of satisfactory documentation. This documentation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①생산과 관련된 사항

②원산지증명서 및 원재료의 제조자 진술서 (원산지 확인서)

③노무비 자료

④외주제작이 있는 경우

⑤신용장 사본 또는 지불 증빙자료

⑥수입업체의 방문기록

If the merchandise was fully manufactured in KOREA factory production records such as raw material invoices, freight bills, support for manufacturing overhead, manufacturing process which details the manufacturing of the items step by step, KOREA Customs clearance records; transaction records; production order records.

Certification of origin and raw material supplier' affidavits.

Actual labor costs involved in production of the articles, proof of factory labor

If production involved sub-contracting; transaction records and factory production records of all subcontractors.

A copy of the letter of credit and/or proof of payment records from the U.S. purchaser.

Export documentation showing that goods claimed to be produced by a factory were the goods actually exported.

If the importer and/or importer's agent routinely conduct visits to factories overseas, an inspection record that he has checked the production of the goods on this particular shipment.

Please provide samples, pictures and information (including advertising material and marketing literature) on the precise manner in which this product will be used, marketed and applied

It is recommended that as much of the above documentation is submitted as possible, directly to the undersigned. Questions regarding this information request may be referred to:

Name: _____ Senior Import Specialist Telephone _____

Address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ll documentations must be in English

①생산과 관련된 사항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의 구매내역, 국내 운송명세서, 원재료 입고내역서, 제조간접비, 단계별 제조 공정도(제조 시설 사진 및 투입되는 원재료 내역이 같이 기재되면 좋다), 생산일지, 작업일지, 거래내역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②원산지증명서 및 원재료의 제조자 진술서 (원산지 확인서)

제조자 진술서는 우리나라의 '원산지(포괄)확인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진술서에는 제조자의 인적 사항(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등), 제공하는 제품의 명세, 수출하는 물품에 투입되었다는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근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서식이 개정되었는데, 각 항목을 영미권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문으로 병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③노무비 자료

생산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 중 하나는 원가를 구성하는 노무비의 내역이 될 것이다. 즉,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제3국에서 생산된 품목인지 한국에서의 평균적인 노무비가 적용된 품목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제품원가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산출 근거를 준비한다. 다만,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담당자의 채용 및 급여에 대한 자료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외주제작이 있는 경우

외주제작이 있는 경우 이들과 관련된 기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외주제작 계약서, 원료 입출고 내역, 제품 생산 기록, 제품 입고 내역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무상사급의 경우, 재료의 소유권은 원청업체에 있으므로 원청업체에서 생산과 관련하여 불량률을 검사하거나 원료 수급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자료 역시 검증 대응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⑤신용장 사본 또는 지불 증빙자료

제품의 가격이 한국 제품으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면 제3국에서 생산되어 한국에서 간단한 공정을 거쳐 수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거래가격(과세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위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⑥수입업체의 방문기록

만약, 수입자가 현지공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선적건의 제품을 점검한 검사기록을 요청하고 있다. 품질이 중시되거나 제조공정상 수입자가 관련 내역을 검사 또는 실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수입자의 관련물품 검사 정보는 물품이 실제로 역내에서 생산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 중 하나가 된다. 물론, 수입자의 해당 검사가 행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제출하거나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술하면 된다.



심영섭 대표는요.

영화 평론가이자 심리학자, 상담가. 심영섭 아트테라피 대표. '심영섭'이라는 이름은 영화 평론상 수상 당시 그녀가 스스로 지은 것으로서 '심리학과 영화를 두루 섭렵했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최근까지 대학에서 상담심리학을 가르쳤으며, 심리학, 영화, 예술, 인문학을 접목한 예술 치료와 기업 강의, 저술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봄, 그리고 자전거

여자가 신록이 파릇이 우거진 무덤가에서 뒷모습을 비춘 채 남자에게 말한다. “상우 씨, 우리도 죽으면 저렇게 같이 묻힐까?” 남자는 말없이 여자의 팔을 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춘다. 그때 햇볕은 저리도록 투명하게 두 사람의 사랑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여자는 남자에게 말하지 않았던가. ‘근데 좀 늦게 오신 것 같네요’라고.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봄은 가장 빛나는 청춘의 시간, 상우와 은수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절정의 시간이자 공간이었다. 4월 이야기의 여주인공 마찬가지이다. 신입생의 설렘으로 캠퍼스에 들어서던 날, 벚꽃은 천지간에 반짝이는 가루처럼 흩날리고, 그녀는 첫사랑 선배를 만난다.

찬란하지만은 않았던 봄의 기억들

계절로 인생을 이야기하는 영화들 속에서 봄은 찬연하게 아름다운 시작의 계절, 청춘의 계절, 첫 사랑의 계절을 증거한다. 지금은 나도 가을의 계절에 속한 나이가 되었지만, 나에게도 봄이 있었다. 그러나 그 봄의 기억은 사실 위의 영화처럼 썩 행복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종류의 것만이 아니다. 나는 80년대에 학교를 다녔고, 봄의 캠퍼스는 늘 광주항쟁에 대한 비밀스런 사진이 도배를 하고, 뿌연 최루탄 가스에 덮인 안개의 계절이기도 했다. 특히 내가 대학 3학년이던 87년 봄의 경우, 연세대 학생 이한열의 사망과 학내 분규가 겹치면서 우리는 동맹 휴학을 해가며, 텅 빈 교실 대신 거리에서 이 한 몸 불사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꽃들은 머리에 흰 천을 두르고 점점이 시청으로 신촌으로 모였던 사람들, 넥타이를 풀어 헤친 흰 와이셔츠 가운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해 캠퍼스에서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이야기겠지만, 전경들과 학생들이 파릇한 잔디위에서 똑 같은 밥을 먹어야 했다. 전경들의 식판에도, 도시락을 싸와 잔디밭에 앉아 밥을 먹던 우리들의 식판에도 똑같은 황사 모래가 서걱 거리고 있었다. 기이하게도 그해 내 청춘이 기억하는 불협화음 같던 봄의 교향악이다.



나는 지금도 만약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언 땅에 육신을 묻지 않아도 될 봄에 죽기를 기원할 만큼 봄의 찬연함속에 오히려 인생무상의 덧없음을 느낀다. 화무십일홍. 붉은 꽃은 딱 열흘 붉으니까. 그러나 꽃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들 꽃잎의 투신은 인간이 느끼는 인생의 허망함이 아니라, 한때의 계절을 살아내고 사라지더라도 겨울을 이겨낸 치열한 생존의 광시곡 같은 것은 아닌가. 그리고 바로 그 약동하는 봄의 기운을 받아, 모든 혁명에는 봄의 숫자인 5월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무상함과 동시에 봄꽃들을 바라보며 살아 있으라 명하는 꽃들과 마주한다. 이 어둠속에서도 등을 맞대고 하얗게 노랗게 각자의 색깔로 피어나 깨어 있으라고 명하는 스러져간 친구들의 얼굴을 본다. 내 인생의 봄은 그렇게 흘러갔다.

가위와 바꿨던 나의 자전거

세월이 흘러 다시 봄이 되자, 나는 전혀 다른 문제에 부딪혔다. 그것은 범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소소한 문제였는데, 내가 자전거를 타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자전거를 생각하면 늘, 마음 한구석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나이 마흔이 넘도록 나는, 자전거를 비롯해 수영, 인라인 스케이트 등등 '균형을 잡아야 하는 운동'을 하나도 배우지 못했다. 그것은 내 인생이나 감정에 대한 균형 감각도 엉망인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자전거는 내게 금기의 영역에 속했다. 한 번은 열다섯 무렵에 우연히 새 자전거를 경품으로 탄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아주 고급에 속하는 일제 가위와 맞바꿔 버리셨다. 앞으로 처녀가 될 때, 자전거를 잘못 타면, 민망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위는 내 첫 번째 혼수품으로 어머니 장롱에 고이 모셔졌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했다. 그러나 나는 결혼할 때 그 가위를 가져가지 않았다.

물론 부모님 몰래 친구에게, 데이트 시절에, 그리고 남편과 아들의 열렬한 응원에 힘입어, 자전거를 배우려 든 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자전거는 너무 컸고, 너무 무거웠고, 발이 닿지 않는 순간이 너무 공포스러웠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주위 사람들은 내게 ‘몸치’ 혹은 ‘자전거 저능아’ 라는 말을 하며,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하기 일쑤였다.

세월이 흘러 나도 딸을 낳았다. 막내딸이 다섯 살이 되자, 딸은 제 아버지에게 자전거를 선물 받았다. 보조 바퀴를 단 예

쁜 분홍색 자전거였다. 아홉 살이 된 딸은 올 봄 드디어 보조 바퀴를 떼고 아버지에게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했다. 씩씩 낡은 길을 가르며, 자신의 새 길을 만들어가는 딸이 참으로 기특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딸이 “엄마도 자전거를 배워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여간해서 고집을 부리지 않는 아이였다. “엄마는 자전거 안 돼. 너도 봤잖아. 엄마 자전거 몸치야” 그러나 딸은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배울 수 있으면 엄마도 배울 수 있어.” 급기야 딸은 대성통곡을 하며 아침부터 울기 시작했다. “자전거 배워야 돼, 엄마.” “자전거 배워야 돼, 엄마.”

아무도 내가 자전거를 못 탄다고 저렇게 슬피 울어준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어린 딸에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싫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평생 내 자전거를 가져 본 적이 없었다. 항상 집에 있는 남편이 쓰던, 아들이 쓰던 자전거를 타려고 했었다. 내겐 너무 커 보였지만, 자전거가 세 대인데, 또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딸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3개월 할부로 큰 맘 먹고 자전거를 샀다. 작고 아담한 내 몸에 맞는 자전거였다. 그리고 한강에 나가, 하루종일 타고 구르고, 또 타고 또 구르고, 넘어지고, 진종일 헤맸다. 무릎과 손바닥이 다 까지고 멍든 후에야, 문득 깨달게 되었다. ‘자전거를 믿어야 한다. 자전거를 무서워하면, 자전거도 나를 무서워한다. 자전거가 나를 타는 게 아니라, 내가 자전거를 타는 것이다.’

자전거와 함께 내 인생의 봄이 다가왔다

15살 이후 30년 만에, 나는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다. 정확히 2010년 5월 2일 일요일에 나는 딸이 보는 앞에서 자전거를 탔다. 이제 자전거라는 상징은 가위 대신, 환히 웃고 있는 내 딸의 얼굴과 연결되었고, 이후 세상 많은 것과 연결되었다. 이전 5월에 황사모래 씹히는 도시락을 먹는 대신, 아이와 여의도에 봄꽃놀이를 간다. 아이가 솜사탕을 먹으며 활짝 웃는다. 팝콘처럼 탁 터지는 이 아이의 웃음이 내겐 또 다른 꽃이다. 봄이 이렇게 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제 봄은 혁명과 최루탄 대신, 긴 겨울잠을 이겨낸 자전거의 계절로 새롭게 다가왔다. 그러니 봄은 꽃이요, 꽃은 사람이다. 아, 딱 이 봄만 같아라. ☺

“틀을 벗어던지는 것이 현대무용의 매력이죠”

안애순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정해진 레퍼토리가 있는 ‘고전(classic)’과 달리 ‘현대(contemporary)’ 예술은 내용과 형식에서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이런 낯섦 때문에 대중과의 접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게다가 시청각 매체로 감상할 기회가 많은 현대미술·음악과 달리, 현대무용은 공연을 보지 않고선 접할 수 없어 더 생소하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현대무용을 보려는 관객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현대무용이 주는 매력은 과연 무엇인지, 국립현대무용단을 이끌고 있는 안애순 예술감독을 만나 그 궁금증을 풀어보았다.

안애순 예술감독은,

현대무용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1985년 ‘안애순무용단’을 창단하며 우리 춤사위의 아름다움과 극적 표현이 깃든 한국식 현대무용을 개척해온 안애순 예술감독은 1990년 서울무용제 대상을 비롯하여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최고안무가상(2003), 한국문예진흥원 올해의 예술상(2004) 수상 등 탁월한 안무역량을 인정받아왔다.

독자 이현주 씨는 대학로 연극무대에서 십 년 넘게 활동해 온 배우다. 무대 위에서 몸짓과 언어로 표현하는 연극과 몸으로 표현하는 무용은 상통하는 면이 있어 현대무용에 관심이 많다. 봄빛이 따사롭던 지난 4월 9일 예술의 전당에서 이뤄진 안애순 예술감독과의 만남은 현대무용의 매력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현주 선생님, 만나 뵈게 되어 영광입니다. 안애순 먼 길 찾아주시어 제가 영광이죠. 이현주 사무실(예술의 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 있다)이 아주 모던하네요. 예술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듭니다.

안애순 창단한 지 4년도 되지 않아, 새로 꾸민 것이라 그런 것 같네요. 최근 로고도 바꾸고 대중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현주 그 전엔 이와 같은 조직이 없었나요? 안애순 뒤통은 감은 있었지만, 국립현대무용단이 설립(2010년 8월)된 것은 현대무용 관계자들에게는 감격적인 사건이었죠. 이현주 현대무용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감을 잡기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감상할 수 있을까요? 안애순 현대무용은 ‘추상’을 표현합니다. 대중들은 정해진 텍스트, 스토리를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런 게 없죠. 추상을 표현한 미술, 음악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많이 볼수록 보는 눈이 생기겠죠. 발레·뮤지컬 관객들 중에는 똑같은 작품이라도 배우와 제작진이 바뀔 때마다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대무용이라고 해서 한 번만 보고 끝내기보다, 동일한 작품도 무대에서 다른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스스로 해석할 여지가 생기겠죠.

이현주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현대무용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안애순 어렸을 때의 교육, 체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발레를 몇 달 배웠는데, 마침 우리학교에서 전국에 배포할 발레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너무 긴장했는지, 제가 뭘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하나의 끊어진 필름이 되어 버린 거죠. 그 이후의 삶은 이 끊어진 필름을 잇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특활로 무용을 했고, 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에서도 무용을 전공했어요.

이현주 그 끊어진 필름이 발레가 아닌 현대무용이 된 데는 계기가 있었습니까?

안애순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끌렸어요. 발레, 한국무용은 정해진 레퍼토리를 따라가는 것이 기본인데, 현대무용에선 짜여진 틀대로 하는 것보다는 내 맘대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았어요. 저의 첫 공연작품인 ‘뿌리’의 경우 땅과 나를 밀착시켜 일어나는 과정을 표현한 솔로 공연이었는데, 미국에서 배울 때는 무대 전체를 오가며 다이내믹한 춤을 추는 것이 현대무용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와 정 반대로 땅을 끌어안고 부비니 정반대의 것이었죠.

이현주 새롭게 않으면 지루함을 느끼신다니, 창조적 감성이 풍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무용단에 취임하신 뒤에도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셨다는 들었습니다. 관람료를 1만 원에서 3만 원 이상으로 올리신 데는 이유가 있었나요?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끌렸어요. 현대무용에선 짜여진 틀대로 하는 것보다는 내 맘대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았어요.”

독자 이현주 씨와 함께한 안애순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안애순 정부 지원을 받는 국립극단이 1만 원을 받으면 무용단 바깥에서 현대무용을 하시는 분들도 그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현대무용에 대한 가치를 높이자는 뜻이기도 하죠. 이현주 그런데도 대부분의 공연이 모두 매진이라고 하던데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애순 예전엔 ‘대중이 뭘 알겠어’라고 했지만, 지금은 분석력을 갖춘 관객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현대무용이 다양한 표현을 위해 타 장르와 협업을 많이 하다 보니, 다른 장르 전문가들도 관심을 갖게 되구요. 이런 수요를 덕에 요즘엔 공연 전 여러 번 쇼케이스를 하는데, 이 때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무용단을 맡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나요?

안애순 현대무용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작업이다 보니, 인문학·철학과 같은 다양한 담론들을 담을 수 있도록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도 다양한 레퍼토리를 준비해서 다양한 관객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현주 무용단은 얼마나 자주 공연을 하나요? 안애순 지난해는 30개의 공연을 했는데,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현주 선생님도 직접 작품에 참여하시나요? 안애순 무대에 안 오르는지는 10년이 되어 가요, 1년에 한두 작품은 직접 안무를 해서 제 작품을 올립니다. 이현주 5월(15~18일)에 공연할 작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안애순 ‘이미아직’이라고 상여의 상징인 꼭두를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 신작초연작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계속 연습실에서 살다 보니 햇살 볼 일이 별로 없네요. 이현주 선생님 패션이나 체형이 지금도 공연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원로배우들처럼 무대에 오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안애순 현대무용은 답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렉처(lecture: 설명)와 함께하는 무용도 할 수 있겠지요. 지금 당장 할 생각은 없지만, 또 못 하는 것도 아니죠. 이현주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 틀에 구속되는 것보다 자유를 추구하시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안애순 현대무용 더 자주 보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내 유일 치즈학교,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탐방기

세계적 치즈장인의 꿈이 자라고 있었다

전북 입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치즈'다. 벨기에의 지정환 신부(본명: 디디에 세스테벤스, 1931~)가 1958년 입실에 부임한 이후 산양 두 마리로 처음 치즈를 만든 것이 1966년. 반세기여가량 이 흐른 올해 3월 입실에 국내 최초의 치즈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가 문을 열었다. 옛된 학생들이 세계 최고의 치즈 장인이 될 꿈을 키우는 곳이다.

서울 용산역에서 KTX로 전주역까지 2시간 30분, 차를 대여해 다시 40여 분을 달려 입실 군 강진면의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이하 치즈과학고)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점심 무렵이라 학생들이 삼삼오오 공을 차기도 했지만, 그 수는 열 명 남짓했다. 전교생 150명 규모로 올해 첫 설립신고를 한 학교지만, 사실 이 학교의 전신은 1980년 문을 연 입실서고등학교다. 35년 넘은 교정의 첫인상은 오래된 시골학교의 느낌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준공된 실습동 '유가공 실습실'에 들어서자 최신 시설들 사이로 하얀 위생복을 입은 21명(총원 26명)의 치즈과학과 3학년 학생들이 한창 요구르트와 치즈를 만드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남학생들은 최종적

으로 완성된 플레인 요구르트를 병에 담고 있는데, 지도하던 이미영 교사의 권유로 시음을 해 보았다. 대량판매를 위해 미세하게 인공 증미제를 첨가하는 공장제품과 달리 자극적인 맛이 덜하고 질감은 겉쫄하다. 우유는 국내 1위 우유업체에 원유를 납품하는 학부형이 공급하고 있어 재료의 품질은 최상이다.

국내 유일 '치즈과학고'에 학생들 대만족
여학생들은 치즈 공정을 실습하고 있었다. 이날 만드는 치즈는 '할로미 치즈(haloumi cheese)'로 가래떡처럼 불에 구워 먹을 수 있는 치즈다. 유산균을 첨가한 우유가 반쯤 굳어진 커드(curd)에서 유청을 분리시키는 과정이 이 날의 과제였다. 묽은 유청과 카제인

이 빠져나오고 순두부처럼 생긴 새하얀 덩어리가 나오자, 학생들이 이를 네모난 틀에 단단히 다져넣었다. 덩어리를 조금 집어 맛을 봤다. 아직 치즈라기보다는 우유맛이 남아 있었지만, 식감은 갓 완성된 순두부처럼 몽글몽글하고 따뜻하다.

학생들은 직접 만든 치즈와 요구르트에 대해 "최고로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실습동이 지난해서야 완공되어 1년 반 동안 이론만 배우다 지난해 2학기부터 비로소 실습이 시작돼 아직도 우유가 치즈·요구르트로 변신하는 과정이 신기하기만 하다. 졸업 전까지 스트링·모짜렐라·페타·까망베르·블루·퀘소블랑코 등 8가지 종류의 치즈를 직접 만들어 볼 예정이다.



1~4 치즈로 유명한 입실에 치즈장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모였다. 치즈과학과는 국내 대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올해 새출발한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5 조리과학과 2학년 학생들이 이탈리아 미트소스를 만드는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6 치즈과학과 3학년 학생들이 직접 만든 플레인 요구르트, 7 1980년 만들어진 교정은 오래된 시골학교 느낌이지만, 최신식 실습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8 노영조 교장은 "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한국 치즈 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학교도 인정받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깔깔거리며 재미로만 실습을 하는 것은 아니다. 박종설 교무부장은 "지난해 유가공 선진국인 스위스의 치즈농가와 치즈공장을 견학하고 온 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고품질 치즈의 경제적 가치를 눈으로 확인한 뒤부터는 단순히 자격증을 따는 생각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치즈기술자가 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게 된 것이다. 누구 하나 딴청 피지 않고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는 모습이 여느 고등학생과는 달라보였다.

바로 위층 조리실습실에서는 조리과학과 2학년 27명이 '이탈리안 미트소스'를 만드는 데 한창이었다. 학생들은 키 높은 조리사 모자와 조리사 복장을 하고 두 팔을 걷어붙인 채 열심히 재료를 자르고 다듬고 익히고 있었다. 전라북도 유일의 요리 전공 선생님인 홍영진 교사가 4명씩인 각 조를 돌며 분주히 지도를 하고 있었다. 칼질 소리, 재료 볶는 소리, 싱크대 물 소리에 사람의 말까지 섞인 현장이다 보니 지도 교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TV의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익히 본 것처럼 주방

장의 목소리가 커지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치즈와 요구르트는 조용하게 오랜 시간만 들어지는 반면, 요리는 빠른 시간 내에 일사분란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 구경하는 사람조차 정신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딴청 피는 학생들 없이 제각각 자기 몫을 하고 있고, 교사는 능숙하게 필요한 내용을 모두 전수하고 있었다.

고등학생답지 않은 진지함 느껴져

조리과학과 학생들은 졸업 전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기본으로 따고, 추가로 한식·양식·중식·일식 자격증은 실기만 보면 되므로 대부분의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 또한 제과제빵, 바리스타 자격증까지도 도전한다. 치즈과학과 학생들 또한 방과후 수업을 통해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치즈와 요리가 좋아서 온 학생들이니만큼 저녁 늦게까지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 재밌지만 하다. 치즈과학과 송다미 학생(3학년)은 "다른 학교엔 이런 과(科)가 없다. 치즈, 빵을 만드는 것이 너무 재밌다.

졸업 후에도 치즈를 비롯한 다양한 식품 분야에 대해 배워보고 싶다"고 학교생활을 설명했다. 김보민 학생(3학년)은 "치즈를 전공한다는 것이 새로워 보여서 오게 됐다. 치즈 종류만도 상상초월할 정도로 많다. 스위스에서 본 다양한 치즈에 매료됐다. 치즈과학과 1기로서 후배들에게 치즈를 알려줘야 한다는 자부심도 생긴다"고 말했다.

치즈과학고는 2012년부터 치즈과학과, 조리과학과 두 전공(각 27명)의 신입생만을 받았고, 올해 2월에는 특성화고 시절의 정보통신과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어 3월부터 새로운 교명으로 새출발을 하게 됐다. 올해 신입생까지는 전라북도 내에서 신입생을 모집했으나, 내년도 신입생부터는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박종설 교사는 "졸업 후 학생들이 실제로 치즈 관련 업계로 취업해 국내 치즈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전국 단위로 뽑으면 이 과정을 꼭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국의 FTA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개최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향후 진로를 모색하다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한국의 FTA 10주년 기념 컨퍼런스'가 3월 31일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 발효(2004년 4월 1일)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경제·통상 분야의 국내 전문가들이 참가해 지난 10년의 FTA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한·중 FTA, RCEP, TPP 등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FTA 추진 방향과 전략을 모색했다.

제1세션은 '한국의 FTA 10년 종합평가'를 주제로 안덕근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업계·정부·연구기관·학계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나섰다. FTA 10년의 경제적 성과를 발표한 무역협회 박천일 실장에 따르면 한·칠레 FTA를 통해 교역 증대, 시장 점유율 확대, 교역 다변화, 관세 절감 효과가 확인되고 무역업계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FTA 활용 기업의 79%가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해 FTA 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김영환 단장은 업계의 노력과 정부·유관기관의 지원으로 우리 기업의 FTA 활용률이 제고되고 있고, 향후 FTA가 국내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FTA에 부합되도록 상거래 관행의 글로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TA 수혜 품목으로 꼽히는 자동차 산업과 피해가 우려되던

농축산업 분야의 평가도 이뤄졌다. 산업연구원 조철 실장은 경제위기로 자동차 산업에서 가격경쟁력이 중요해지며 미국, EU 시장에서 FTA 효과가 극대화되었으나, 향후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국내 생산 능력을 늘리고 중소, 중견기업이 많은 자동차 부품 수출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 단장은 FTA 초기 관세 인하로 농축산물의 수입 증가는 제한적이었지만 이행 진전에 따라 농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가시화 될 것이므로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출 확대를 도모해야한다고 진단했다.

제2세션에서는 '한·중 FTA, TPP 등 세계통상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산업연구원 김도훈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아주대 김한성 교수는 RCEP의 원산지 규정을 한·중 및 한·중·일 FTA에도 반영해 우리 교역의 50% 정도가 동일한 특혜 원산지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협상 방안을 제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철 실장은 TPP 참여시 관세철폐보다는 비관세 장벽 제거, 투자 효과, 통일 원산지 규정 적용의 이익,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효과를 감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향후 FTA 정책 방향과 관련, FTA 이행 체계를 재정비하는 가운데 FTA 범주를 확대해 서비스 시장 개방과 국내 규제개혁의 선순환 효과를 도모하는 등 혁신 작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는 FTA 실익을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우려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국내 생산 부문과 자원 배분의 효율화, 소비자 이익 발생이라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대 임정빈 교수는 한·중 FTA, 금년 쌀관세화 전환 등 전면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국가 농정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포괄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로아티아의 EU가입에 따른 한·EU FTA 추가의정서 정식서명

3월 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크로아



티아의 EU 가입을 고려하기위한 한·EU FTA 추가의정서'가 우리측 김창범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EU측 장-뤽 드마티(Jean-Luc Demarty) EU집행위 통상총국장 및 테오도로스 소티로폴로스(Theodoros Sotiropoulos) 의장국 대사(그리스대사, 28개 회원국 대표) 간에 정식 서명됐다. 이는 크로아티아가 2013년 7월 1일부터 EU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EU는 크로아티아를 한·EU FTA 회원국으로 추가하기 위한 한·EU FTA 추가의정서 체결 협의를 요청했으며, 양측은 2013년 11월 8일 동 추가의정서에 가서명한 바 있다. 의정서가 발효되면 기존 우리나라 및 EU의 상품 양하는 크로아티아에 그대로 적용된다.

성실업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폭 쉬워진다

관세청(백운찬 청장)은 4월 1일부터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업체 등에게 별도의 심사 없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줌으로써

성실 수출업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관 등 발급기관에서는 수출업체 등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 왔다. 이번에 원산지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성실업체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등 법규준수도 우수업체(2013년 기준 28개), △최근 1년 이내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된 업체(2013년 기준 146개) 등이며, 건수 기준으로 연간 약 3만5,000건 이상이 심사 생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심사 생략 확대를 통하여, 성실기업들은 그동안 건당 약 1.7일 소요되던 발급 심사시간을 크게 줄여 수출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6차 한·뉴질랜드 FTA 공식협상 개회

제6차 한·뉴질랜드 FTA 공식협상이 3월 26~28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우리측은 이성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수석대표) 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대표단이, 뉴질랜드측은 마틴 하비(Martin Harvey) 외교통상부 국장(수석대표), 외교통상부, 관세청 등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한·뉴 FTA 수석대표간 협의 및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등 협정문 협상을 진행했다. 수석대표간 협의를 통해 핵심쟁점인 상품양허 수준에 대한 입장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우리 농수산물 보호수준에 대한 이견이 커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여타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제도충치 등 협정문

협상에 대해서는 일부 진전을 이뤘다. 양측은 4월말 소규모 수석대표급 협상을 개최하여 계속 진전을 모색해 나가기로 잠정 합의했다.

RCEP 제4차 협상 개최

RCEP 제4차 협상이 3월 31일~4월 4일 중국 난닝(南寧)에서 개최됐다. 금번 협상은 RCEP 16개 회원국(ASEAN+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총 500명 규모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우리측은 김영무 산업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관이 정부대표로 참여했다.

금번 4차 협상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아울러 경쟁, 지적권, 경제협력에 대한 작업반 논의도 시작됐다. 상품 분야는 시장자유화를 위한 모델리티(협상방식, 협상 목표 등),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는 시장자유화 방식 및 협정문의 기본 요소(element)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으며, 금번 협상부터 새로 논의가 시작된 경쟁, 지적권,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협정문에 포함될 주요 요소 및 협상범위와 계획(Scoping Paper)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협력, 전자상거래, 정부조달분야의 협정 대상 포함 문제에 대해서도 회원국간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차기 회의(제5차 협상)는 금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리 김보람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한국경제신문



'함께하는 FTA' 편집위원회 개최 FTA 홍보 위해 민·관이 손 잡았다

지난 3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함께하는 FTA' 1차 편집위원회가 개최됐다. 편집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범정부차원에서 협력·추진 중인 FTA의 홍보와 관련해 정부 내 인식을 공유하고 홍보방향을 논의하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 채널로 활용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편집위원회는 매월 기획·편집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출, 소속된 조직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정책이슈를 소개, FTA 성공사례 및 기업탐방 등의 콘텐츠 제공 및 취재 협조에 의견을 모았다. 편집위원은 정부위원, 기관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촉된 편집위원은 아래와 같다.

- **위원장** 조용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
- **정부위원** 최영수 산업부 FTA홍보협력과장, 최진원 산업부 FTA정책기획과장, 서해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 우동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김대희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장, 제영광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 이승유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컨텐츠과장
- **기관위원** 오병률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팀장, 조민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활용전략실장, 김승욱 KOTRA FTA사업팀장, 김광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획팀 차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장,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 장은경 한국소비자원 서비스조사팀장
- **민간위원** 정부군 FTA 컨설턴트, 이경희 신세계미래정책연구소 수석위원,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 이민선 Ciel HS 관세사



독자의 소리 <함께하는 FTA>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무역학과로 진로를 정한 고등학생입니다. 대학 진학 전 무역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서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함께하는 FTA'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FTA라는 주제가 딱딱하고 어렵다고만 생각했었는데, 막상 보니 재미있는 사실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캐나다 FTA를 통해 국내의 중소기업 수출향상으로 힘을 보으면 좋겠습니다.
홍순철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매달 정기 간행물로 접하고 있는데 호가 지나갈수록 FTA를 접하는 느낌이 딱딱하게 느껴졌던 처음과는 다르게 쉽고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입사 후 4년 동안 한·일, 한·아세안 등 FTA 업무를 해왔지만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 사업'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회사에서도 수출 시 너무 자세한 원가를 요구해 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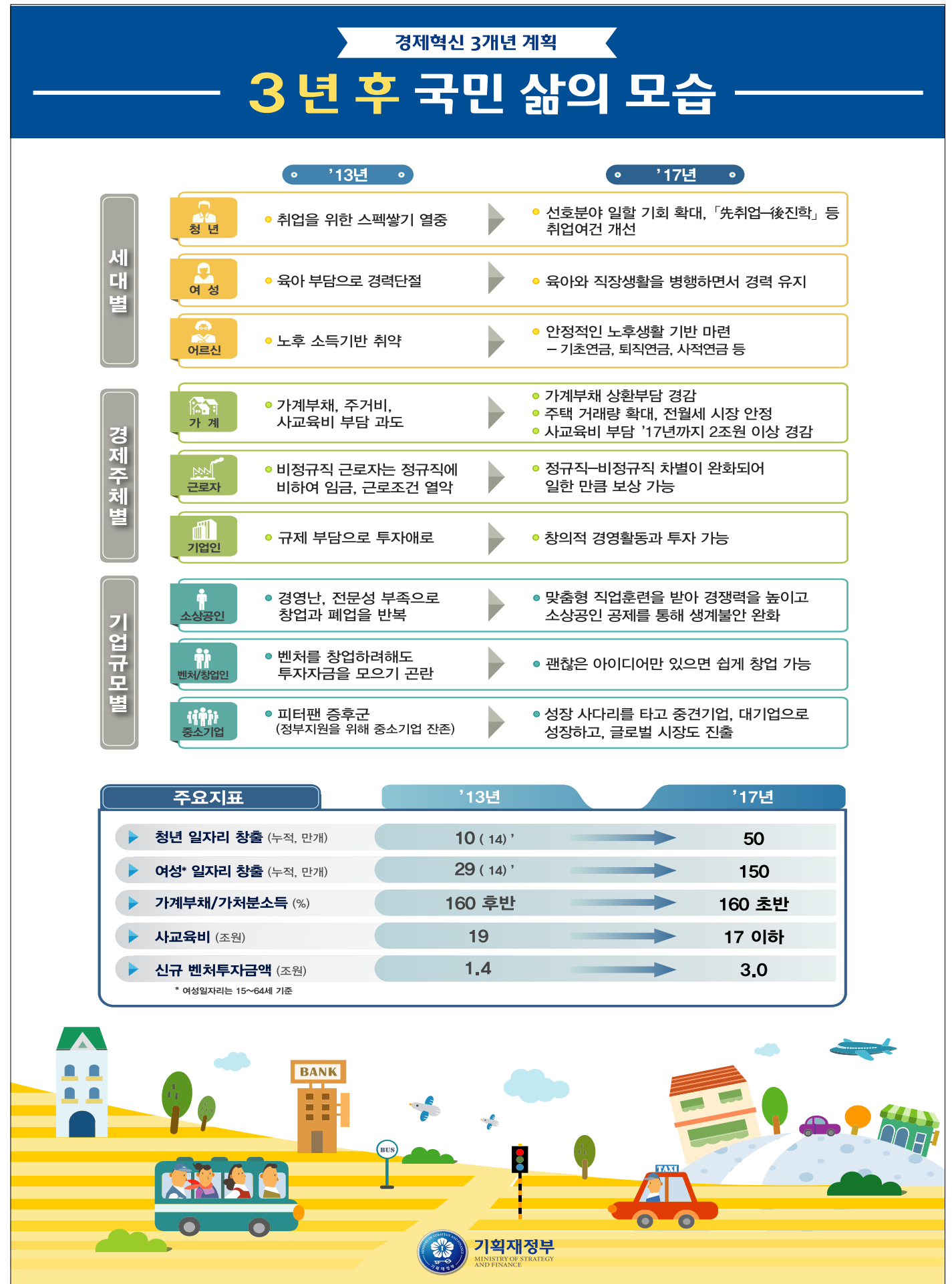
감했던 적이 있었는데, 추후에도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용해 보고 싶습니다.
심은혜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창고 가득 오크통이 쌓여있는 와이너리 풍경은 낯설기도 한데 무주에 도메인 와이너리가 있다니 꼭 한번 맛보고 견학도 하고 싶네요. 사또무주 대표의 환한 미소와 함께 '농부의 마음으로 머루를 키우고 장인정신으로 술을 담근다'는 포부가 인상적입니다. 우리농업의 색다른 미래를 본 것 같네요.
박한영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함께하는 FTA'를 매월 꾸준히 구독하다 보니, FTA 관련 기사나 뉴스들이 언제가부터 귀에 쏙쏙 들어오며 이해도 잘 되고 제 나름의 의견도 생기게 되더군요.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FTA활용지원센터에서 원산지확인서의 적합성을 검토·확인하고 확인결과서를 발급해주는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는 정보가 새로웠습니다. 수출업체와 협력업체의 신뢰가 한층 돈독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강현정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한국인의 입맛에만 맞는 줄 알았던 떡볶이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새로운 음식한류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뿌듯한 마음이 드네요. 떡볶이가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다양한 식재료들과 만남을 통한 개발 및 진화라는 다양성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모든 수출품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초일류 상품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이춘임 경기도 포천시 광릉수목원로



FTA 활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 3 8 0

FTA 콜센터 1380에서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 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컨설팅, 정보제공,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보제공

FTA 활용정보 통합제공
해외 전문가 초청 FTA 활용 비즈니스전략 정보 제공



▶ 교육 및 홍보

FTA 실무교육 제공 / 대기업 협력업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회사별 원산지관리시스템 Edu-sulling(교육+컨설팅)



▶ 애로해소

FTA 활용 애로사항 해소 및 정책 건의 / 협정문 및 이행 관련법령 유권해석 지원
FTA 원산지 증명서 증명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



▶ 컨설팅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 HS 품목분류,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 관련 컨설팅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